

한국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YWCA 신임회장교육 · 목 차

2023 YWCA 신임회장교육	개요	
	2023 YWCA 신임회장교육 일정표	3
	참가자 명단	4
	워크숍 조 명단	5
	예배·묵상	
	여는 예배	6
	닫는 예배	7
	아침 묵상	8
	강의자료	
	주제강연 에큐메니칼 기독교신앙과 YWCA의 사명	9
	강의① YWCA 목적과 회장의 사명	22
	강의② 2023년 YWCA 운영 및 운동정책	45
	강의③ 회원YWCA 재구조화 성과와 과제	51
	강의 및 워크숍 비영리 거버넌스와 회장 리더십	68
	워크숍 회장 네트워킹 및 다짐 나눔	91
	안내	
	I. 숙박 안내	96
	II. 23(목) 일정 안내	98
	III. 기타(신임회장 특송 악보)	100
	참고자료: 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문	101

2023 YWCA 신입회장교육 · 일 정 표

시간	2. 22(수)	2. 23(목)
07:00~09:30		아침묵상·아침식사
09:30~10:00		정기총회 장소 이동
10:00~10:30	참가자 등록	신입회장단 특송 연습(2)
10:30~10:40	여는 예배 인도: 송록희(연합회 국장)	2023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11:00~)
10:40~12:10	에큐메니칼 기독신앙과 YWCA의 사명 장윤재(이화여대 교수)	
12:10~12:20	소개 및 안내	
12:20~13:30	점심식사	
13:30~14:00	YWCA 목적과 회장의 사명 원영희(연합회 회장)	
14:00~14:30	2023년도 YWCA 운영 및 운동정책 구정혜(연합회 사무총장)	
14:30~14:40	휴식	
14:40~15:10	회원Y 재구조화 성과와 과제 박동순(연합회 국장)	
15:10~15:30	휴식	
15:30~17:30	비영리 거버넌스와 회장 리더십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17:30~18:00	연합회 회관 라운딩	
18:00~19:00	저녁식사	
19:00~19:20	신입회장단 특송 연습(1)	
19:20~20:20	회장 네트워킹 및 다짐 나눔 진행: 송록희(연합회 국장)	
20:20~20:30	닫는 예배 인도: 조영숙(충주YWCA 회장)	
20:30~20:40	수료식	
20:40~	안내 및 숙소 이동	

2023 YWCA 신입회장교육 · 참가자 명단

	소속YWCA	성함
1	강릉YWCA	전배자
2	(사)고양YWCA	김혜경
3	군산YWCA	우원경
4	광명YWCA	곽은
5	(사)광주YWCA	노은미
6	동해YWCA	김근혜
7	(사)목포YWCA	강경숙
8	부천YWCA	박행우
9	사천YWCA	구영화
10	(사)서울YWCA	조연신
11	(사)세종YWCA	김인숙
12	안동YWCA	임귀숙
13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박혜숙
14	의정부YWCA	신선화
15	익산YWCA	이진주
16	(사)인천YWCA	권미영
17	진주YWCA	정덕은
18	진해YWCA	박명숙
19	(사)청주YWCA	윤성자
20	춘천YWCA	이병옥
21	충주YWCA	조영숙
22	파주YWCA	윤정희

연합회 실무
지역협력교육국
Y아카데미

국장 송록희
 부장 정서연
 간사 이수진

■ 워크숍 조 명단

1조	2조	3조	4조
강릉 전배자	광명 곽은	부천 박행우	군산 우원경
고양 김혜경	동해 김근혜	서울 조연신	사천 구영화
광주 노은미	목포 강경숙	의정부 신선화	안양 박혜숙
세종 김인숙	진주 정덕은	익산 이진주	인천 권미영
안동 임귀숙	청주 윤성자	진해 박명숙	춘천 이병옥
		충주 조영숙	파주 윤정희

★ 조별 활동 강좌

<비영리 거버넌스와 회장 리더십>, <회장 네트워킹 및 다짐 나눔>

이 시간에는 조 명단에 따라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YWCA 신임회장교육 · 여는 예배

◎ 인도: 송록희(한국YWCA연합회 국장)

예배로의 부름	마태복음 5:13-16 (새번역)	인도자
<p>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p>		
찬 송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1, 3절)	다함께
<p style="text-align: center;">1.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p> <p style="text-align: center;">[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p>		
<p><한국YWCA 기도>¹⁾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25-28</p>		
목 상 영 상	<p>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p>	다함께
주 기 도		다함께

1) 출처: <1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YWCA 49주차 기도>

2023 YWCA 신임회장교육 · 달는 예배

◎ 인도: 조영숙(충주YWCA 회장)

예배로의 부름	에베소서 1:7-9 (새번역)	인도자
<p>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p>		
찬 송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 3절)	다같이
<p>1.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이 주 예수 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 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p>		
성 경 본 문	누가복음 16:10	다같이
<p>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p>		
대 표 기 도		인도자
찬 송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1, 3절)	다같이
<p>1.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p> <p>3.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p>		
주 기 도		다같이

◎ 사도행전 1:8

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
 씬 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황해도 해주에 아주 충성스러운 머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주인이 머슴에게 “오늘은 연평도에 다녀와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반을 마치고 주인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없네요. 아무리 찾아도 온종일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해 넘어 어둑할 즈음, 초주검이 된 머슴이 나타나서는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연평도에 다녀왔습니다.” 이 머슴 뭐지요? 연평도에 다녀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밥도 안 먹고 바다를 건너갔다 온, 이 화상을 어찌면 좋겠습니까? 가라 하면, 적어도 가는 이유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놓치는 것이며, 한심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선교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선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토대합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선교는 두 방향을 갖습니다. 하나는 ‘땅끝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먼저 교회는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끝’은 어디일까요? 성서 시대에는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로마를 넘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땅끝은 새로운 땅이 발견될 때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사실 땅끝은 어떤 특정한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는 ‘모든 사람에게’와 같은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교회는 땅끝까지, 곧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 묵상 나눔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한때 서구 교회는 ‘만민에게 세례를 주라.’는 선교명령을 실천한다면서 식민지 노예들을 한꺼번에 강물에 집어넣고 강제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제는 지구상에 교회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교회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도시는 밤마다 네온사인 십자가 빛으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만날까요? 선교는 교회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숨 가쁘게 땅끝까지 달렸는데 정작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일까요? 설마 ‘맘몬’의 줄개는 아니겠지요?

오늘의 기도

주님, 사람들이 내 모습에서 무엇을 볼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처: 2023 사순절 묵상집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 대한기독교서회

주제강연

에큐메니칼 기독교신앙과 YWCA의 사명

강사 | 장윤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에큐메니칼’(ecumenical)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배타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신앙이 강한 곳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풍토에서는 대화와 관용의 문화가 자리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잘 참고 대화하다가도, ‘너 몇 살이냐?’, ‘어디 여자냐?’, 혹은 ‘너 종북이지!’, 이 중 한 마디면 모든 대화가 끝장나고 맙니다. 너와 나의 차이를 인내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에는 우리의 역사가 너무 고단했나 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방식을 존중하는 톨레랑스(tolerance) 문화가 자리를 잡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했나 봅니다.

상호소통과 공감 능력이 빈약한 ‘가부장제 문화’에 ‘군사주의 문화’와 설상가상으로 ‘근본주의 신학’까지 결합하면서 한국은 에큐메니칼 신앙과 운동이 뿌리내리기 무척 어려운 척박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에큐메니칼 신앙과 문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역설적으로 한국이며, 에큐메니칼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지금까지 개교회주의, 성장주의, 분리주의, 그리고 배타주의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교의 갱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한국 YWCA의 신학적 토대라고 이 글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에큐메니칼’ vs ‘에반젤리컬’

‘에큐메니칼’(ecumenical)이라는 말은 신약성서에 15번 사용된 그리스(헬라)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이 사는 온 누리’를 뜻합니다. 내 식구, 내 지역, 내 교파, 내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온 누리, 즉 지구 전체를, 나아가 우주 전체를 사유의 지평으로 삼으니 에큐메니칼 신앙은 태생적으로 포용적이고 탈(脫)경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에큐메니칼 정신과 신앙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큐메니칼 vs 에반젤리컬’이라는 잘못된 도식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은 에반젤리컬의 반대라는 거짓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에큐메니칼은 무언가 에반젤리컬, 즉 ‘복음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

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하이데거) 잘못된 언어부터 바로잡아야 바른 생각이 듭니다.

‘에큐메니칼’의 반대말은 ‘에반젤리컬’이 아닙니다. ‘에큐메니칼’의 반대말은 ‘섹테리언’(sectarian)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근시안적인’, ‘편협한’, ‘분파의’, ‘교파의’, ‘당파적인’, 혹은 ‘파벌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은 반대는 분파주의, 교파주의, 당파주의, 배타주의, 그리고 분리주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근본주의(fundamentalism)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분리주의, 배타주의, 당파주의, 교파주의, 분파주의이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신앙의 반대말은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시각이 결여한 근본주의 신앙은 늘 복음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편협한 분파로 전락하곤 합니다. 자신이 믿는 특정한(particular) 교리가 보편적(universal)이고 유일하며 최고의 거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교리(doctrine)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인간)의 해석이고 풀이인데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revelation)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긍정하는 태도와 어긋나는 자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한 성령’과 ‘같은 성령’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신앙의 소유자인가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전 12:4-11)

근본주의 신앙은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복음을 사유화합니다. 이와 달리 에큐메니칼 신앙은 ‘교파적 신앙고백’(confession)의 소중함을 긍정하나 그것이 전체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면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고전 12:25) 하려는 정신이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은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비우려는 신앙적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에큐메니칼은 철저한 에반젤리컬(복음적)입니다. 에반젤리컬(evangelical)

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evangelion)을 모든 것의 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신앙적 삶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사명선언’(Mission Statement)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누가 4:18-19)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들,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이 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다름 아닌 ‘복음적 이상들’(evangelical ideals)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 했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금까지 가장 우선으로 추구해온 가치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세계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누구도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와 같은 복음적 이상들을 구현하기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 7:20) 하셨습니다. 에큐메니칼은 ‘탈복음주의’도 ‘후기 복음주의’도 혹은 ‘세속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깊이 헌신하려고 하는 지극히 복음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에큐메니칼 신앙과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되려면 우리는 먼저 에큐메니칼을 에반젤리컬에 반대말로 오해하는 잘못된, 그리고 의도된 이분법적 도식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언어가 실상을 기만합니다. 에큐메니칼 신앙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에큐메니칼 기독교 신앙은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가 교회 되게 하려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 운동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교회됨’

“교리는 분열시키고 봉사는 일치시킨다.”(Doctrine divides, but service unit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요지는 골치 아픈 교리적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세상으로 뛰어들어 함께 땀 흘리며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치가 주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리적 문제만큼이나 사회참여와 봉사에서도 분열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도, 실제로 어떤 정치경제 체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떤 성장이나 발전이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대화와 일치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 수없이 많은 교단으로 갈린 교회 사이의 대화는 ‘공동의 증언’과 ‘공동의 봉사’를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오늘날처럼 깊이 상처 입고 분열된 세상 안에서 교회가 일치와 구원의 거룩한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적 · 교리적 · 예전적으로 하나 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치는 중요하지만 ‘일치를 위한 일치’가 에큐메니칼 신앙과 운동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일치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묻지 않으면 분열은 물론이고 일치마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843년에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가 1929년에 하나가 된 스코틀랜드장로교회의 모습을 히틀러 치하의 독일교회가 모델로 삼아 히틀러를 지지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교회의 통합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를 묻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일치는 진정한 일치가 아닙니다. 교회의 갱신과 변혁이 없는 연합은 오히려 분열의 죄를 지속하고 숨기는 더 큰 죄일 뿐입니다.

일치는 인위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치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교회(ekklesia)란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묻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큐메니칼 운동은 신앙의 눈으로 시대의 징조를 읽고 세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 있게 응답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운동입니다. 이 세계의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응답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세계, 곧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cosmos, 우주 만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 3:16)라고 했습니다.

죄가 창궐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듯이(롬 5:20),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의와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곳에 교회 일치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곤 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만든 유럽교회가 그랬고,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70~80년대 교회가 그랬으며,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극심한 고통받던 남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그랬고, 멀리 뒤돌아가면 독일의 고백교회가 바르멘 선언으로 히틀러의 폭정에 대항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교회일치운동이 본

격화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된 내적인 요구에서라기보다 교회 바깥에서 시작된 세상의 위기로부터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자(聖者)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되 그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다.”(The saints do not see things that others do not see; rather, they see what everyone else sees but in a different way.)” 에큐메니칼 기독교 신앙과 운동은 남과 다른 눈, 즉 깊은 영적인 눈으로 시대의 징조들을 읽고 이 세계의 위기에 책임 있게 또 용기 있게 응답하려는 그리스도인 공동의 신앙 운동입니다. 21세기는 희망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의와 극심한 양극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종교 간 갈등과 충돌, 세대와 문화 간 단절, 그리고 영적·정신적 혼돈 등, 일찍이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간의 탐욕이 문명의 멸망을 재촉하고 우주적 종말까지 예견케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롬 8:22)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이사야 6:8)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이사야 6:8)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큐메니칼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YWCA 목적문에서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라는 구절 안에 바로 이 부르심의 에큐메니칼 신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즘(ecumenism)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① ‘기독교 내’(intra-Christian) 에큐메니칼, ② ‘기독교를 넘어선’(beyond Christian) 에큐메니칼, 그리고 ③ ‘우주적’(cosmic) 에큐메니즘입니다. 이 구분은 학자들의 인위적 구분이 아닙니다. 실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구분입니다.

먼저 ‘기독교 내’(intra-Christian) 에큐메니즘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드린 간절한 ‘고별기도’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그 성서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 17:21)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웠으면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기도가 저들의 일치를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우리들)도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임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는 사실 무서운 경고가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된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분열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었다고 증언하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마 “너나 잘 하세요”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 4:1-6)

완고한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풍토에서 이 ‘기독교 내’ 에큐메니즘은 언제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2천 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분열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만 200개가 넘습니다.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다 핵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지구상 78억 인류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명입니다. 인류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중 가톨릭이 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으로 큰 교단은 오순절입니다. 개신교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이어서 정교회 순입니다. 가톨릭-오순절-동방교회 순입니다. 장로교회는 9위쯤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3% 정도입니다. 한국의 신교도 그리스도인을 다 합해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0.6% 정도입니다. 한국을 ‘선교대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선교를 받는 인도네시아엔 한국보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10배입니다. 필리핀은 7배입니다. 아프리카엔 10개 나라 이상이 한국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많습니다. 인구가 남한보다 적은 케냐만 해도 기독교인 숫자는 남한의 두 배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 생각인지. 에큐메니칼 신앙과 정신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서로 배우고 사귀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런 에큐메니칼 기독교 신앙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대 에큐메니즘은 청년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며 수없이 많은 생명이 스러질 때 뜻있는 기독교 청년들은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분열된 민족들을 치유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 성직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속한 교단의 눈치를 보느라

이미 그어진 교단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교회의 일치를 추구한 자들이 바로 뜻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국YWCA 목적문이 “젊은 여성들이”로 시작하는 데는 이 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YWCA가 기성 교회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YWCA 자체가 하나의 온전한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이지만 그 안에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YWCA는 ‘명시적’ 제도교회가 아닙니다. 열린 형태의 교회로서 하나의 ‘잠재적’(latent)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성 제도교회보다 선교적 기능이 더 두드러진 교회입니다. YWCA는 교회와 사회 사이에 놓인 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창(window)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내’ 에큐메니즘의 성패는 지역과 청년과 평신도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신앙과 운동은 남성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사명입니다. 원래 에큐메니칼 운동의 동력은 교단 안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 힘은 교권(敎權) 밖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학생·청년·평신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에큐메니칼 기독교 신앙은 YWCA와 같은 젊은 기독교 여성 평신도들의 것입니다.

둘째로 ‘기독교를 넘어선’(beyond Christian) 에큐메니즘입니다. 지금까지 에큐메니즘은 대부분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에큐메니칼 신앙과 운동은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교단통합’보다 더 큰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온 누리’를 뜻하는 오이쿠메네라는 말 자체가 벌써 에큐메니칼 신앙과 운동은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라는 한국 YWCA 목적문의 한 구절 안에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신앙이 교회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잇는 신앙이니 종종 ‘영혼구원’은 잊어버리고 ‘사회참여’만 강조한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주가 아니라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에베소서 4:6) 계십니다. 분명 에큐메니칼 신앙과 운동은 빈곤과 인권과 정의와 평화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참여’의 신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치적 해방으로 축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개인의 사후 영혼 구원으로만 축소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에큐메니칼 신앙은 역사 앞에 책임지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YWCA 목적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 사랑’(요 3:16)이요 그 사랑이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머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

권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불의와 폭력과 파괴로 얼룩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에큐메니칼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증언’(public witness)운동입니다.

‘기독교를 넘어선’ 에큐메니즘은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도 지향합니다. 오랫동안 각 종교 전통들은 서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가 한 지역에 공존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정신적으로 서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각 종교 공동체들이 상호 고립을 깨고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종교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우려와 종교 간 대화가 선교의 절박함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에큐메니칼 기독교 신앙이 종교 간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이유는 오늘날 이 세상에 ‘기독교적 대답’만을 요구하는 ‘기독교적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경제적 불평등, 전쟁과 테러리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대규모의 파괴 등,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아직 기독교인들만이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 공동체가, 나아가 전 인류 공동체가 ‘초당적’으로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고서 안 됩니다.

그런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웃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이 한국 개신교회의 선교를 ‘공격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선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마저 교회의 선교를 ‘위협’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선교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한국 개신교회의 선교방식이 폭력적이고 비기독교적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 교회(교단)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적이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교회(교단)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을 해외 교회들은 ‘양도독질’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행위는 겉으로는 열정적인 선교행위로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전도에 대한 배신이고 복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의 대안은 ‘공동의 증언’이고 ‘협력 선교’입니다. 자신과 다른 기독교 전통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교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미 존재하는 지역교회와 협력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대화적 접근’은 기독교 선교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 종교와의 ‘겸손한 대화’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람들 사이에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입

니다.(빌립보서 2장) 예수께서는 결코 제국주의적인 십자군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힘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 양 착각합니다. 교회는 종종 ‘예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가 14:36)라고 기도하시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그 사랑의 방법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주적’(cosmic) 에큐메니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온 누리’를 뜻하는 오이쿠메네에는 사람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이쿠메네는 ‘하나님의 집’(oikos)입니다. 이 집엔 인간만이 살지 않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커다란 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날마다 100종의 생명체가 멸종하고 있으며, 2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8천6백만 톤의 기름진 땅들이 침식되며, 1억 톤의 이산화질소가 내뿜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자기파멸과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학자들의 경고는 결코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아열대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는 등한시하고 ‘저 세상’의 ‘구령’(영혼의 구원)에만 관심하는 경향이 여전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할수록,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을수록 환경에 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여론조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말씀’(성서)과 ‘보는 말씀’(자연) 사이에 끊어졌던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뿐인 이 지구를 인간이 잠시 묵었다가는 ‘호텔’(hotel)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거하는 생명의 ‘집’(home)으로 다시 인식하는 생태적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 에큐메니칼 신앙입니다.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전의 교회중심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점차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깊이 관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교회의 일치’에서 ‘인류의 일치’로 그리고 ‘창조세계의 일치’로 에큐메니칼 신앙과 운동의 지평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에큐메니칼 신앙을 단순히 교회 일치의 신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한국YWCA 목적문)을 목적으로 하는 ‘총체적 구원의 신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를 넘어서

‘에큐메니칼’ 신앙의 반대는 ‘에반젤리컬’(복음주의) 신앙이 아니라 분리주의 혹은

분파주의 혹은 배타주의와 동의어인 ‘근본주의’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에 에큐메니칼 정신과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근본주의 신학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본래 미국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근본주의는 또한 한국적 현상입니다. 미국 근본주의의 선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주의 교파는 세계 어디에나 있으나 이렇게 개신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를 모르고서는 한국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본주의는 지금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막강한 지배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주의란 보통 다섯 개의 근본 교리, 즉 성서의 무오류성, 예수의 처녀탄생, 예수의 신성과 기적의 사실성, 인간의 죄로 인한 예수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을 믿는 종교운동입니다. (이 다섯 가지 근본 교리는 종종 변합니다.) 그런데 근본주의는 단순한 종교적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근본주의란 ‘분노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전투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한 마디로 ‘화가 난’ 기독교 보수주의를 우리는 근본주의라 부릅니다. 왜,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그렇게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적으로, 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근본주의(fundamentalism)는 원래 기독교 자유주의(liberalism)와 나름 높은 수준의 신학적 논쟁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자체 분열을 시작하면서 편협하고 배타적인 분리주의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싸움과 분리’가 1930년대 이후 미국 근본주의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본래 ‘불신앙’(기독교 자유주의)으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던 운동이 이제는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은 모든 이들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는 운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초기 근본주의 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연합의 정신은 사라지고 후기 근본주의는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배타적 분리주의’ 혹은 ‘호전적 분리주의’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 ‘싸움과 분리’가 1950년대에 한국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2천 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심한 교단 분열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본주의를 근본주의로 만드는 것은 신학적으로 축자영감설이나 전천년주의 혹은 세대주의와 같은 교리가 아니라 ‘교회론’입니다. 즉 교회를 무엇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근본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그레삼 메이첸(J. Gresham Machen)은 교회를 “특정한 신학적 입장에 동의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언제나 극단적으로 교리적”이고 또한 언제나 “극단적으로 불관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리적으로 순결한 교회”를 꿈꿨습

니다. 교회는 ‘올바른 신조’를 고백하는 ‘순결한 신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회관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타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교회론 때문에 그는 1930년대 미국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리’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이들을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그의 한 말 안에 에큐메니칼 신앙의 정반대인 근본주의 신앙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신앙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차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한 참가자가 남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내려 합니다.”(We intend to stay together) 영어 “intent to”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만나보니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기]”(고전 12:4) 때문입니다. 각 교파의 신앙고백(confession)은 소중하나 그것이 전체의 한 부분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세계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고전 12:25) 하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큐메니칼 신앙이고 정신입니다. 이와 달리 근본주의는 자기와 교리가 다르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일치는 ‘교리적 일치’ 이외의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일치’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움과 분리’를 일삼습니다.

근본주의자는 ‘화가 난 보수주의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의 분노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으로 극명하게 가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근본주의자들의 호전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권력에의 욕망이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근본주의 신앙 밑에는 ‘무의식적인 권력 의지’ 혹은 ‘세계정복에 대한 정치적 집단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근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는 누군가에게 ‘빼앗긴 미국’을 다시 개신교의 나라로 만들려는, 상처 입은 집단 무의식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아메리카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의심하는 개신교도는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전쟁(1861-65)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은 산업혁명과 도시화 그리고 대규모의 이민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경험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유럽에서 시작해 서유럽을 휩쓸고 마침내 미국까지 집어삼킨 1873년 금융공황을 경험합니다. 당시 뉴욕에서만 순식간에 10만 이상의 실업자가 생겼고 동부의 여러 도시에서는 무장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본격적으로 근본주의 신앙으로 기울어진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톨릭교도들의 지속적인 이민의 증가는 개신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도시화는 미국 사회가 근대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지배되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개신교의 이상과 가치들이 지배적인 세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상실감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주역이었던 개신교도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낯선 땅’이 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주의는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구체제)이 해체된 후에 도래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슬람의 원리주의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통절히 느껴지는 무질서에 직면하여 질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로부터의 고립이나 도피가 그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근본주의나 원리주의의 최종목표는 ‘복원’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권세와 헤게모니를 복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권력에 대한 극단적인 관심을 은폐하면서 속으로는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권력에의 욕망이 바로 근본주의인 것입니다. 무한한 싸움과 분리, 끊임없는 혐오와 배제, 끊이지 않는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에큐메니칼 신앙의 반대쪽인 근본주의 신앙은 지난 20세기의 현상이었고, 또한 21세기에다 지속될 ‘지구적 종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한국YWCA는 “젊은 여성들이 /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기독 여성 시민운동입니다.

나가는 말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지만 가장 빨리 쇠퇴하고 있는 한국의 개신교회는 신속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처한 깊은 위기를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분열과 분리, 경쟁과 패권의 모델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 포용과 관용, 대화와 협력의 모델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근본주의 신앙에서 에큐메니칼 신앙으로의 회심(metanoia), 그것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성차별적인 가부장제 문화에 계급적인 군사주의 문화와 배타적인 근본주의 신학까지 결합하면서 한국은 에큐메니칼 신앙과 정신 그리고 문화와 운동이 뿌리내리기 참

힘든 척박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이 세계에서 에큐메니칼 신앙과 운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YWCA는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이 에큐메니칼 신앙을 자기의 신앙고백으로 100년의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100년을 이 소중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의 위기를 신앙의 눈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 나라와 세계 안에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에큐메니칼 신앙의 본산지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의①

YWCA 목적과 회장의 사명

강사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YWCA 시작과 오늘>

YWCA를 이해하다

-목적, 정체성, 운동, 운영-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YWCA 시작과 오늘> YWCA 를 이해하다.

- YWCA 목적, 정체성, 운동, 운영 방식을 통해

요약: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

✓한국YWCA 시작

✓한국YWCA의 목적과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

✓한국YWCA 목적을 구현하는 모습 →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YWCA 기본이해



-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 ✓YWCA **기본이해**
 - ✓한국YWCA 시작
 - ✓한국YWCA의 목적과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
 - ✓한국YWCA 목적을 구현하는 모습 →
 -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 한국YWCA는
- 세계 109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 세계YWCA 회원국 → 국제운동체

-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창립

- 청년운동 Young
- 여성운동 Women
- 기독교운동 Christian
- 회원운동 Association
-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

YWCA 기본 이해 – 원영희의 Y경험



1971 Y-teen
1973 대학청년YWCA



1978 실무활동가(간사)
1989 자원활동가(위원)



실행위원, 위원장,
세계YWCA 이사



회계, 서기, 제2부회장,
제1부회장, 회장



✓YWCA 기본 이해

Y W C A

- 청년성/Young
-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사고
- 개방적이며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운동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 시작/ 목적/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개방적이며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운동



Y W C A

• 여성성/Women



카리를 놓는 사람
故 박에스더 선생님

•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운동체



YWCA 목적과 정 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 / 시각/ 목적/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 /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

-성평등, 평화, 생명운동



Y W C A

- 기독교/Christian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르치심
- 사회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기독교운동체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 / 시작/ 목적/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Y W C A



• 회원운동성/Association

- 국내/국제 회원의 자발적 참여
- 세계YWCA 회원국으로 정의·평화·창조 질서의 보전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국제 회원운동체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시작/목적/기독교성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한국YWCA, 그 시작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창립(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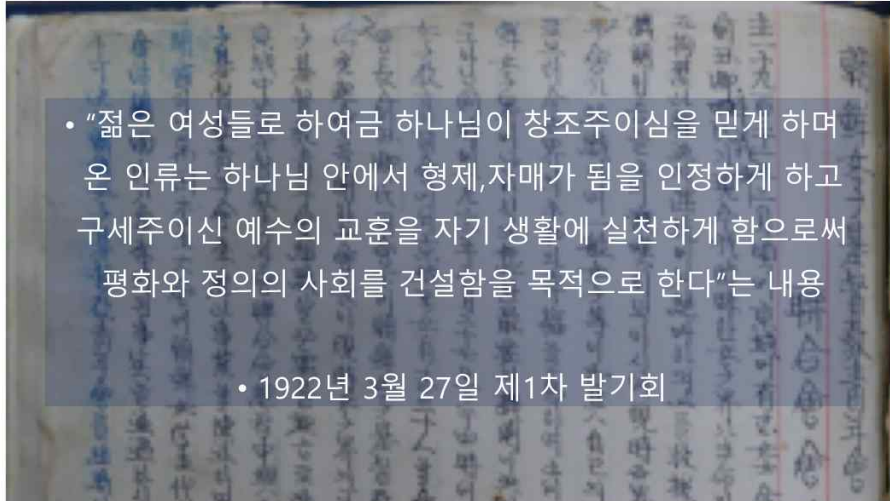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와 봉건사회 관습이란 이중 억압 속에 사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조선에 YWCA를 세워야 한다는 결의.

-1922년 6월 13일부터 12일간 서울 충정로 협성여자성경학원에서 제1회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 하령회

-발기문 작성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시작/목적/기독교성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발기문(1922.3.)



시작 : 세계 속에서

세계YWCA



세계YWCA

- 세계YWCA(World YWCA)는 1894년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YWCA에 의해 창립
-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 2천5백만 여성들이 회원으로 참여
- YWCA 활동은 산업혁명 기간 동안 영국에서 기독교 여성들이, 도시로 이주해온 **젊은 여성들의 주거문제, 여가 활동, 영적 요구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시작.

- 1994년 세계YWCA 100주년 기념식

-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여성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여성의제 (The Women's World Agenda) 탄생.

- 세계적인 여성운동체로, 100여 개국의 여성들과 소녀들의 요구에 맞춘 활동 지속

- YWCA는 기독교 평신도여성운동체로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운동, 회원운동의 정체성 확립.

- 세계YWCA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특별 협의 지위를 보유한 국제 단체.
- 한국YWCA도 독립 지위 보유함.
- ECOSOC 산하 기능위원회에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 Commission of Status of Women)가 있는데, 세계 여성운동 확산에 기여.

- ◇ CSW는 여성관련 국제협약을 제정
- ◇ 이행여부 감시 감독
- ◇ 정치·경제·사회·교육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 보고



세계YWCA의 목적

모든 인류의
정의, 평화, 건강, 인간존엄성, 자유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공동의 힘과 리더십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YWCA 현장에서)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서적/  / 가독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Bold Goals for Envisioning 2035

"By 2035, 100 million young women and girls will transform power structures to create justice, gender equality and a world without violence and war; leading a sustainable YWCA movement, inclusive of all women.

(*2015년 2월, 세계Y 이사회)

비전2035 '권력구조 변혁을 위한 담대한 목표'

"2035년까지 1억 명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정의롭고, 평등하며, 폭력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
권력구조를 변화시키고, 모든 여성들을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YWCA 운동으로 이끈다."

한국 YWCA 현재 목적문 (1997~)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시작/목적/가독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한국 YWCA 현재 목적문	1922-3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 각 기독교 청년회를 연합하는 기관을 작함. 2. 각 학교 및 도시 내부와 타계급의 조선인을 위한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 3. 연합위원으로 말미암아 발달된 청년회로 하여금 차 연합회를 통하여 만국어 자기독교청년회동맹과 세계기독교학생동맹으로부터 연락케 함. 4. 다음 사업을 증진케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년의 영·지·체 및 사교적 행복을 발달케 함. 나) 청년여자로 야소기독을 신앙케 하여 생활의 원만과 인격의 개발을 기도 하며 천국을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1940-4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 각지 기독교 여자청년회를 연합함을 작함. 2. 각 학교, 도시 및 일반 부인을 위하여 기독교 여자청년회를 조직 및 발전케 함. 3. 청년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신앙인으로서 단결케 하고 영육, 지육, 체육 및 봉사적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이상적 인격의 개발을 기도 하며 사회를 성화시키고 천국을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1950-5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는 청년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신앙으로서 새 단결케 하여 영육, 지육, 체육 및 봉사적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기독교적 인격의 개발을 기도하며 사회를 성화시키고 천국을 지상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2. 조선 각지 기독교 여자청년회를 연합하는 기관을 작함. 3. 각 대학교, 도시 및 농촌 부인을 위하여 기독교 여자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

한 국 Y W C A 현 재 목 적 문	1954-55	젊은 여성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공통된 이상을 목표로 서로의 친선을 두텁게 함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게 하는 데 있음.
	1956-72	본회의 목적은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임을 인정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
	1973-96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됨을 인정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7-현재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시각/목적/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우리의 목적문은
우리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운동의 방향성을
함축한 우리의 깃발/아우성이다.**

1997년 전국대회에서 채택된 현재의 목적문은 사전에 깊이 있는 토론과 검토 과정에서 사회적·신학적인 배경을 참고

“21세기는 생태학적 위기, 사회 정의의 위기, 경제 정의의 위기가 맞물려 있으므로 JPIC 신학과 운동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방향이 될 것”



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완성 !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한국YWCA 100년**

한국YWCA 100주년 기념영상

Q.Q.Q.

1. 목적은 () ()으로 완성된다.
2. YWCA의 목적은? 목적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3.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의 주제는?

조혼폐지와 공창폐지운동



조선YWCA는
축첩, 조혼, 미신, 공창제 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이 악습 폐지를 강력하게 주창.

토론회와 강연회를 열어
민족의식과 여성의식을 심는
여성 교육 실행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 / 시각 / 목적 /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 /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독립운동으로써의 농촌계몽운동



최용신 선생

여성들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YWCA 회원들은 마을 속으로 들어가 한글교육과 성서교육 실시

연합회가 수원 샘골에 **최용신**을 1930년대 초반에 파견
그의 헌신적인 생애는 YWCA 농촌계몽운동의 상징

일제 말기에 이르러 탄압이 극심해져 활동을 지속하지 못함

당시 일본은 천황신민화정책을 내세우며 특히 기독교 탄압

결국 조선YWCA는 1938년, 일본YWCA에 소속

1942년, 끝내 문을 닫는 수난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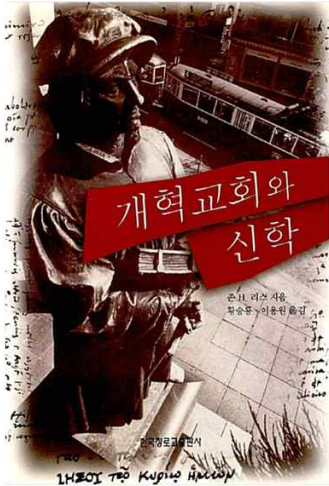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 시작/ 목적/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목적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완성!

그러나 신앙에서도 생활의 질서(order) 중요하듯이
죄로 인해 와해된 질서 회복의 역사가 교회 역사이듯이
목적은 행동으로 표현할 때 질서를 지켜야 한다.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 시작/ 목적/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개혁전통과 자유



개혁전통은,
유대전통으로부터의 자유
세례요한의 선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마3:9)

『개혁신학과 신학』 존 리스(John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5장. 교회 정치와 개혁 전통

1.교회 정치의 중요성 = [정치]조직 생활이 중요한 이유

1) 교회 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확신

- 사역과 조직은 하나님 선물
- 교회 조직은 기능(functional)이나 인간 편이 위주일 수 없다.
- 신앙과 생활의 질서order 중요.

--죄로 인해 와해된 질서 회복의 역사가 교회 역사

(*2. 단, 교회 정치는 복음에 종속된다.)

2) 신학을 위해서도 조직은 중요하다

- 신앙과 표현 방식 관계
-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실천과 예배를 통해 형성

3) 교회의 온전성(integrity)을 유지 위해

- 권징 필요: 온전성 유지를 위한 권징/discipline은 칼빈주의 특징
- 권징과 질서 중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전 바른 집행 위해

“교회는 어느 하나에도 배타적으로 고유하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속한다.”(177)

“하나님께 나아오기에 적합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곳, 교회에 있는 것이다.**”(178)

칼 바르트 (Karl Barth)

Calling, 소명 의식과 YWCA

“하나님께 나아오기에 적합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곳, **교회**에 있는 것이다.”(178)



“하나님께 나아오기에 적합한 사람이 YWCA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곳, **YWCA**에 있는 것이다.”



▼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한 논제>

YWCA 목적과 정체성, YWCA 운동과 운영
YWCA 기본이해 / 시작 / 목적 /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의 정체성 이해 /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운동의 형태**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한 논제>는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YWCA의 활동가들이
한국 YWCA의 미래를 위해서 토론하기 위한 95개의 논제

95개의 논제는
종교개혁 전통을 계승하고,
한국YWCA의 목적문 정신을 담고,
현재 한국의 시대정신과 YWCA 활동가의 자세를 포함하고 있다.

시대정신과 한국YWCA 활동가의 자세

80.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YWCA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YWCA를 지배하는 기관이 아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마가복음 1:14)

81. 예수께서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인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마태복음 4:23)

84. 한국YWCA는 신앙공동체이다.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다. 한국YWCA는 공적인 기독교시민 운동단체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엇갈릴 때에 공적인 것을 우선한다.
-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마가복음 8:33)
85. 한국YWCA는 신앙공동체이다. 신앙공동체에는 경쟁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 경쟁은 죄이다. 타자를 무시하고, 아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죄악이다.
-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빌립보서2:3)
86. 한국YWCA는 신앙공동체이다. 신앙공동체는 질서를 지켜야한다. 공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회원들이 권한을 위임한 대표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것은 한국YWCA라는 공동체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한국YWCA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다.
-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합니다.>(고린도전서 14:40)
87. 한국YWCA는 신앙공동체이다. 한국YWCA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을 훈계하고, 한국YWCA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해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방조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데살로니 가전서 5:14)

88. 한국YWCA 공동체의 구성원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고린도전서 1:10)

89. 한국YWCA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19)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고린도전서 1:13)

90.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를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한국YWCA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14-15)

91.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조건이 없는 기부는 받지만, 조건이 있는 기부는 받지 않는다.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향과 내용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 기부자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혜를 베풀고, 받는 차원이 아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마태복음 10:9-10)

92. 한국YWCA의 목적은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이다. 모든 구성원은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한국YWCA의 목적은 한국YWCA의 목적문에 나타나 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요한복음 17:21)

93. 한국YWCA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신앙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YWCA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마태복음 6:9)

94. 한국YWCA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일을 한다. 신앙은 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YWCA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마태복음 6:10)

95. 한국YWCA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신앙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마태복음 6:10)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마태 복음 6:13)

제 95조. 한국YWCA의 구성원은,

95. 한국YWCA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바르트의 말처럼)
신앙은 내 뜻을 주장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마태복음 6:10)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13)

QQQ?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부르심 받아 나선 우리들...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다가 YWCA에서 만나,

함께 모여 활동을 하고, 또 다시 흩어지는 우리들.

전국적으로 구조 변혁의 상황에 놓인 역동적인 시기,

2023년 현재 ,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회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건가?

강의②

2023년 YWCA 운영 및 운동정책

강사 | 구정혜(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2022-2023년 한국YWCA 운동정책

■ 운동추진 기본방향

1) 기후위기대응 주류화

한국YWCA는 창립99주년을 기하여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우리의 시대적 역사적 운동으로 결의한 바 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이슈이자 현 시대 모든 사회적 현상들과 연관된 통합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과 국제 사회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각 국가들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선진국들은 에너지 및 산업 체제 전환에 빠르게 돌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1년까지 2030 탄소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개인의 생활을 넘어 산업계와 국가 정책 단위에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있다. 이에 한국YWCA는 각 운동영역에서 기후 위기 대응 주류화를 전략으로 삼아 ‘탈핵기후생명운동’을 52개 회원YWCA가 함께 전개해나갈 ‘전국중점운동’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청년·여성 주도성 확대

청년과 여성은 YWCA 운동 주체의 핵심이다. YWCA는 구조 변화의 핵심에 청년성 확립을 두고 있으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책임과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년 대표성을 확대하는 체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모든 활동에서 청년 비율 확대와 자치성 강화를 YWCA 운동성 강화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통과 하면서 청년·여성들은 불평등의 피해자를 넘어, 기후 정의를 위한 체제 전환의 주체로서도 요청받고 있다. 또한 전쟁과 갈등의 위협 속에서 화해와 평화의 담지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YWCA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 자치적 운영과 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여성 주체성 확보를 운동 전략으로 삼고자 한다.

3) 선거 대응 및 운동의 지역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 정책 이행 평가와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 사회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과 위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외교적인 노력 등도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한국YWCA는 탈핵 및 탄소중립사회 구축,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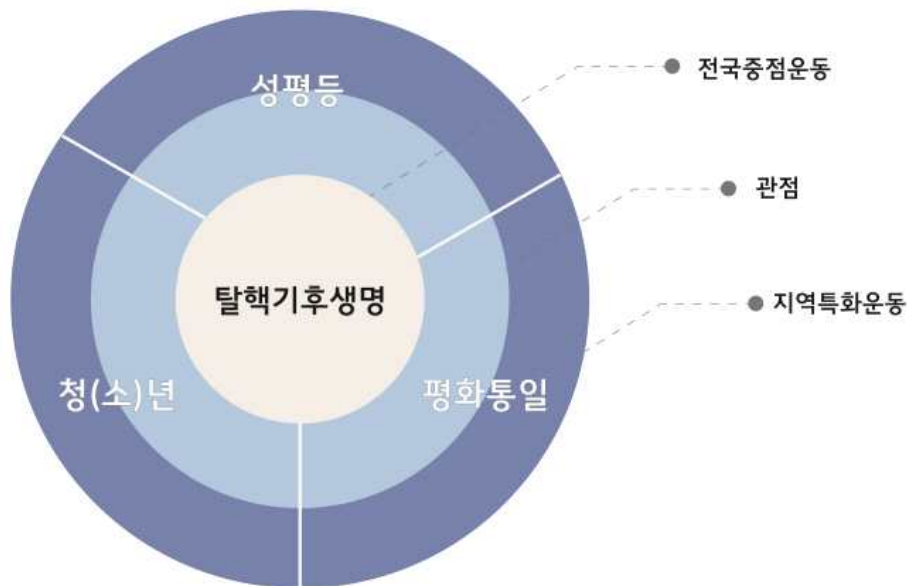
제고, 평화 문화와 체제 구축, 경제정의가 있는 청년의 삶 등을 주요 대선 의제로 다룬다. 각 지역에서는 포스트 대선 정국 속에 지역 이슈가 매몰되지 않도록 지방선거가 준비되어야 한다. 한국YWCA는 회원YWCA 조직과 구조 변화를 통해 회원YWCA가 본연의 목적을 발현하는 지역운동체로서 자리잡도록 지원하고 있다. 운동 영역에서 지역의 관심이나 이슈로 구체화되고, 시민 주체성이 확대되며, 지역 변화와 시민사회 변혁을 통해, 각자의 지역과 사회 속에서 시민운동체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YWCA는 성평등, 청(소)년, 평화통일 영역을 지역특화운동으로 제안하며, 회원YWCA가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활동을 통해 운동의 지역화를 이루어 내기를 기대한다.

전국중점운동 : 탈핵기후생명운동

한국YWCA는 기후위기 전면 대응을 위해 2022-2023년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결의하고, 전국 차원에서 청(소)년, 성평등, 평화의 관점을 반영한 중점운동을 전개하며, 회원YWCA 및 권역별로는 각 지역 상황에 적합한 특화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전국과 지역이 따로 또 같이 자치와 자율, 연대와 협력으로 유기적인 방식을 통해 운동을 확산해나간다.

<활동방향>

1. 기후정의 체제 전환 과정에 청(소)년 주체성 확립
2. 성인지 관점의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 전개
3.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탈핵기후위기 대응



* 탈핵기후생명운동은 전국중점운동으로 진행하고, 청소년, 성평등,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확장되어 나가며, 확대된 마지막 원은 지역특화운동으로 회원YWCA들이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음. 원의 핵심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림으로 운동을 선택하여 확산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전국공통과제 : YWCA RE100 “YWCA 다시 100년, RE 100!”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자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 RE100 (Renewable Energy 100)에, 한국YWCA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여 시대적·역사적 운동으로 지속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RE”로 ‘다시’ 시작되는 100년과 ‘재생에너지’의 중복적 의미를 표현함.

나부터 RE100	우리Y RE100	지역 RE100	코리아 RE100
① 제로 웨이스트 :전기, 육식, 플라스틱, 석유, 쓰레기 줄이기 등	① 기후위기 청(소)년 활동기양성 :100인 발굴 ② 대상별 에너지 전환교육 확대 ③ Y건물 에너지 제로화 : 에너지 효율 조사 및 소비감축, 건물 에너지체제 전환	① 2030 탄소감축목표 로드맵 촉구 (대선·지선 대응) ② 기후정책 수립 과정 여성 참여율 50% 확대 (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 등) ③ 기후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회원Y·도협의회) ④지역사회 연계 교육 및 에너지전환 활동 (교회·학교·아파트단지/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로컬푸드 교류, 제로웨이스트샵 등)	① 성평등한 탈핵 기후정책제안 (선거 대응) ② 탈핵 법제화 촉구 활동 ③ 에너지체제 전환 과정의 여성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촉구 ④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남북협력 체제 구축 촉구 (100주년 기념 여성평화순례 연계)

지역특화운동 : 청(소)년,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운동	성평등 운동	평화통일운동
목표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일상에서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을 획득하고 주도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철폐하고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역량을 강화한다.	일상 속에서 평화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참여와 교류와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기반을 마련한다.
활동방향	<p>1. 청(소)년 회원 권리 확대를 위한 참여 구조 마련</p> <p>1) 청(소)년 리더십 발굴 및 지원</p> <p>2) 청(소)년 의사결정구조 참여 확대</p> <p>3) 지역 사회 아젠다 발굴 및 실천(선거 대응)</p> <p>2. 청(소)년 자치 활동 조직과 운영</p> <p>1)지역기반 청(소)년 자치 활동 조직체 구성</p> <p>2)지역사회 이슈와 YWCA 청(소)년 운동 연결</p> <p>3. 지속가능한 청(소)년 운동 기반 마련</p> <p>1)YWCA 청소년운동 실무 활동가 활동 지원</p> <p>2)온오프라인의 안전한 공간 연구 및 운영</p> <p>3)청(소)년운동 확대를 위한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p>	<p>1. 젠더폭력 근절 기반 마련</p> <p>1)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청소년, 학교연계 등)</p> <p>2) 공공정책 홍보물 및 대중 매체 모니터링</p> <p>2.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p> <p>1) 지역사회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선거 대응 등)</p> <p>2)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및 여성 청년 일자리 창출</p> <p>3) 성별임금격차 해소 활동</p> <p>3. 기독교여성주의 확대</p> <p>1)기독교여성주의 교육 및 관련 활동</p> <p>2)지역 교회 연계 성평등 문화 확산</p>	<p>1. 평화 인식과 문화 확산</p> <p>1) 평화교육과 평화감수성 증진 활동</p> <p>2)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확산</p> <p>2. 평화통일 분야 여성 참여 촉진</p> <p>1) 지자체 평화기구 여성 참여 확대</p> <p>2) 여성·청년 평화 교류와 연대 강화</p> <p>3.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p> <p>1)북한 여성·어린이 인도적 지원</p> <p>2)남북교류와 협력 방안 마련</p>

2022-2023년 한국YWCA 운영정책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YWCA 목적과 정체성에 기반한 구조 개혁 정착 2. 청년과 회원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 3. 연합체로서 상호연대와 책무성 제고를 통한 지역운동 조직 안정화
정책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 참여 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YWCA 회원정책 연구 및 수립 2) YWCA 활동회원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교육과 회원 대상 프로그램에 매년 회원 회비의 5% 배정 3) YWCA 후원회원 참여 확대 2. 청년 참여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YWCA 운동과 의사결정 구조에 청년 주체 참여 강화 2) 청년리더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활동 지원에 매년 회원 회비의 3% 배정 3) 청년 주체 운동 모델 개발 3. 회원YWCA 재구조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YWCA 분석 기반 재구조화 컨설팅 지원 2) 회원YWCA 맞춤형 재구조화 지원 교육 3) 회원YWCA 재구조화 준비 및 실행 지원 4) 법인 회원YWCA 임원 필수교육 4. YWCA 운동역량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YWCA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운동역량 강화 교육 2) YWCA 지역운동 개발 3) 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광역시.도협의회 운영 활성화 5. YWCA연합구조 정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합회-회원Y간 연대와 협력 강화 2) 회원Y 관련 규정 및 제도 보완

강의③

회원YWCA 재구조화 성과와 과제

강사 | 박동순(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국장)

2023.2.22. YWCA 신입회장연수

 한국YWCA연합회

거대한 조직의 거대한 전환

회원YWCA 재구조화 성과와 과제

박 동 순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장

 한국YWCA연합회

[함께 나눌 이야기]

의미와 성과 돌아보기

우리에게 남은 미완의 과제들

2

멀리뛰려면



멀리뛰기(젓혀 뛰기)의 연속 동작

©금성출판사

3

변화를 앞서나간 YWCA

- 한국YWCA 창립 100년 이후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한국YWCA 세 법인과 회원YWCA가 Y정체성과 목적에 맞게,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구조로 재정비함.
- 지방분권화 시대에 **회원YWCA의 자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운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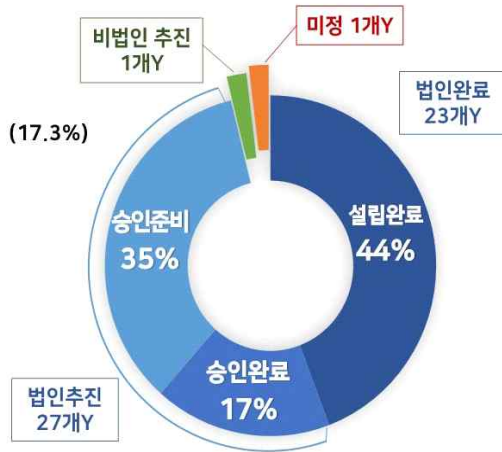
2020.3. 한국YWCA 정기총회
“회원YWCA 재구조화 5개년 계획 정책 목표”

GO 100
YWCA

4

회원YWCA 재구조화 추진현황

- 전국 52개 회원YWCA중
 - 법인 설립 완료 23개 Y (42.4%)
 - 법인 추진중 27개 Y (52%)
 - 연합회 지역법인 승인완료 및 법인설립진행단계 9개Y (17.3%)
 - 연합회 지역법인승인 신청 준비단계 18개 Y(34.6%)
 - 비법인사단 추진 1개 Y
 - 1개Y 방향 미정
-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
 - 법인설립 23개Y 100% 지정완료
 -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지정
 - 법인설립 23개중 13개Y 지정완료 (56.5%)
 - 10개Y 신청준비중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공익활동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YWCA 재구조화



'길' 현수막이

공익법인의 최고 전문가들은 모두 YWCA에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회원YWCA재구조화자문단 운영
2021.5 ~



7

길이 없으면 만든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여성폭력시설을 포함하라!



폭력피해 여성 지원시설 현안 긴급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논의

2021.8.18

- >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 (21.9.18 개정)
- > 가정폭력시설이 있는 지자체별도세감면조례 개정운동필요 (행안부에서 개정요구 제출하는 지자체 감면조례 모두 승인하기로함)



8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YWCA 한국YWCA연합회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감면대상 확대!

구분	현행 (감면율)	개정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연장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은 무료·유료 여부 등에 따라 감면 재설계
사회복지시설 (무료)	신설	취득세·재산세 50%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사회복지시설 (유료)	신설	취득세·재산세 25% (조례 50%p 추가 可)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

비영리법인 합병·분할과 설립 허가주의 제도개선 방안

2022년 1월 26일(수) 오후 2시~4시

국회입법조사처 (동행) | 한국YWCA연합회 (동행) | 한국YWCA연합회 (동행)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주최: 한국YWCA연합회

안되면 되게 하자

65년전 제정된 민법에 묶여있는 공익법인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
비영리법인 합병·분할과
설립 허가주의 제도개선 방안

2022. 1. 26

민법, 65년만에 전면개정!

2023. 1.25. 법무부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 마약정정국 지위 회복
-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미래변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11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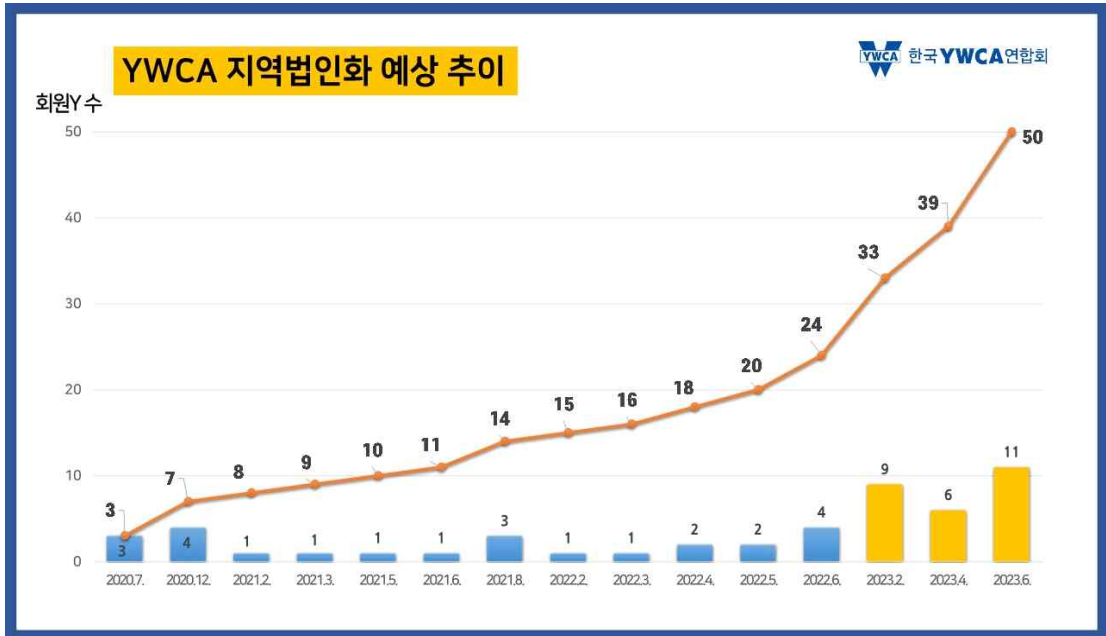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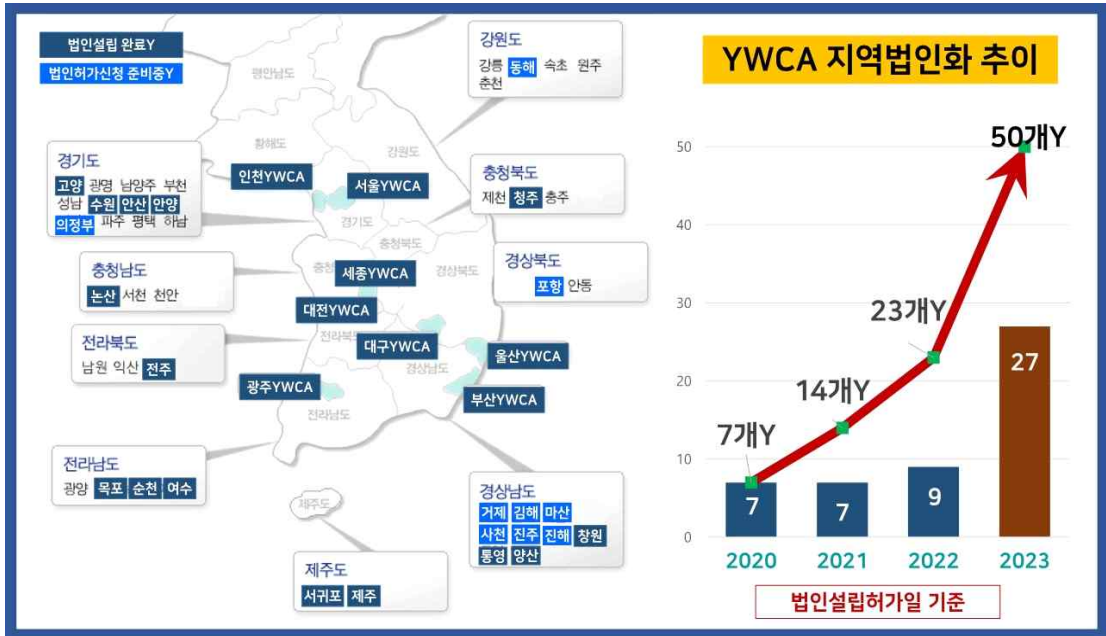
**“후원회비는 기부금품법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며
법인의 인건비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2023. 2. 2. 대법원 선고

탄 원 서

존경하는 대법관님,

정관에 따라 가입한 후원회원으로 부터 회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의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일체가 모두 모집비용으로서 모집액의 15% 이내의 범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의 두 차례의 판결은 지금껏 성실히 공익활동에 전념하며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전국의 비영리·공익단체와 법인(이하 “모금단체”)들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2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15

재구조화후 우리YWCA
안녕하십니까?



16

05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 ▶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23.2%(2017년) → 30.1%(2019년)로 증가
 - '기부단체 등을 불신하여 기부하지 않았다'는 비율 역시 8.9%(2017년) → 14.9%(2019년)로 증가
- ▶ 기부금 단체는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 필요

약속

- ▶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지출 투명성 제고
 -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 의무화
 - 기부금 수입 대국민 공개
 - 전용계좌 미사용시 패널티 강화
 -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 국민 검증 강화
 - 상설신고 확인제 도입을 통한 목적 내 지출, 적격지출 증빙 의무화
- ▶ 불투명·무책임한 회계처리에 대한 패널티 강화
 - 회계부정·자금유용 등 불상실한 자금 효용이 확인된 단체에 대해 3년간 국제정 개별 검증 의무화
 -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치 위반시 기부금 모금 제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강화



시민단체 기부금 어떻게 쓰였나 누구나 들여다본다...인수위 "투명성 강화"

尹정부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기부금 모집때 전용계좌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화
 비영리단체 보조금 심사·집행 모니터링 강화
 "국민 신뢰 기반 시민단체 공익활동 늘릴것"

등록 2022-04-29 오후 3:00:56
 수정 2022-04-29 오후 3:03:56

가 가

-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
- 현장·현금 모금에 대해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해 보조금의 심사와 집행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
- 감사원 산하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가칭)을 통해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강화

권성동 "시민단체, 민주당 정치예비군 전략..철저히 감사"

이슬기 | 입력 2022.08.16. 09:21

1935



YWCA 한국YWCA연합회

정부, 500개 보조금 사업 '절반 이상' 손본다...재정 구조 조정 본격화

- 한국일보 2022.5.29

감사원,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 감사착수

- KBS 2022.8.8

보조금사업터는 감사원, '에이스' 투입

- 중앙일보, 2022.8.8

19

- 2022. 8.~ 정부보조금받은 민간단체 1,716개단체 감사중
- 2022.10.2. 시민단체활성화 규정 대통령령폐지
- 2022. 11.~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시민단체 세무조사
- 2022. 12.~ 비영리민간단체 전국 전수조사
 - 국민의힘 **보조금 법 개정 추진중**(2022. 12. 28, 성일종 정책위의장)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추진중**
- 2023. 1.3. 기획재정부의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 특별조사 계획 발표
- 2023. 1.4. 비상경제장관회의 : 정산보고서검증, 보조금 회계감사 대상을 3억원이상, 10억원 이상에서 1억원이상, 3억원이상으로 대폭확대 법개정추진 계획 발표
- 2023. 1. 17. 모든 부서에 보조금전수조사 TF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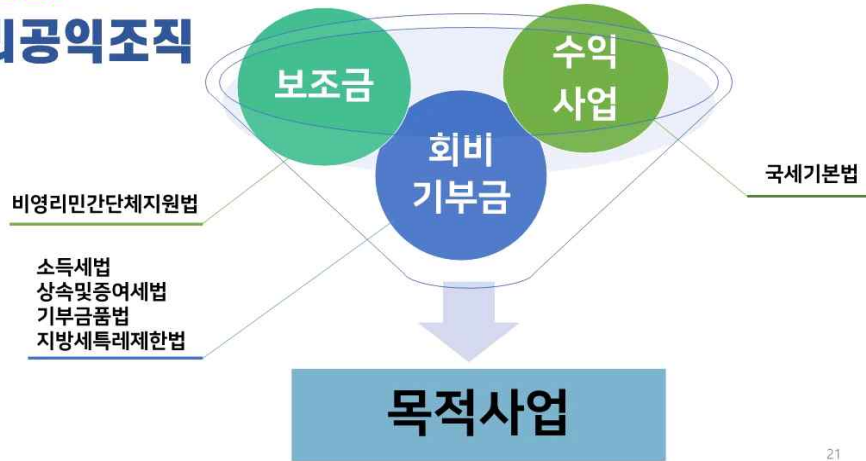
YWCA 한국YWCA연합회

이권카르텔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열세낭비 소수 먹잇감
시민단체 돈줄

20

여기서 잠깐!
비영리공익조직 수입



코로나이후 변화된 사회
YWCA는?



사진출처 : YTN 다큐S프라임 캡처 22



YWCA 한국YWCA연합회

YWCA 한국YWCA연합회

YWCA 재구조화 미완의 과제

- 투명성
- 민주성
- 책임성

투명성

기부금 사용 및 재정적 정보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수준

- 윤리규정 실행 정도
- 정보공개수준 : 사업성과정보, 조직운영정보, 재정정보
- 정보공개 수단 활용도
- 상호작용 수단 활용도
- 조직의 반응성

민주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 운영과 내부규정 마련 등의 노력

- 규정정비 정도
- 규정준수 촉진 정도
- 직위의 고른 분포
- 의사결정 개방성(참여도)
- 내부의사결정의 빈도(적극성)
- 내부의사결정 주체의 다양성

책임성

사명, 성과, 재무, 지배구조 등

- 재정(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공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
- 지배구조(이사회)의 책무-Duty of care, obedience, loyalty)
- 성과(결과와 성과기반 책무)
- 사명(사명중심 책무)

#2023_YWCA_이사필수교육 #NGO거버넌스리더십_강의자료참조 #이명신교수

제 2021 - 1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YWCA

2. 소재지 : [Redacted]

3. 대표자

- 성명 : [Redacted]
- 생년월일 : [Redacted]
- 주소 : [Redacted]

4. 주된 사업

- 여성의 인권과 참여, 평등보장을 위한 성평등운동
- 여성 권익증진과 지도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구사업
- 여성 사회교육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여성환경, 소비자운동
- 여성이 참여하는 건강한 지역사회운동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운동
- 기타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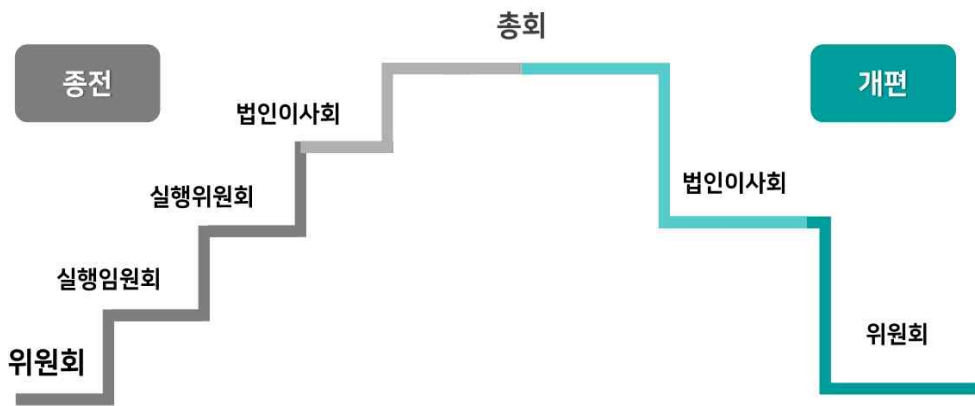
2021년 2월 19일

도지사인 [Redacted] 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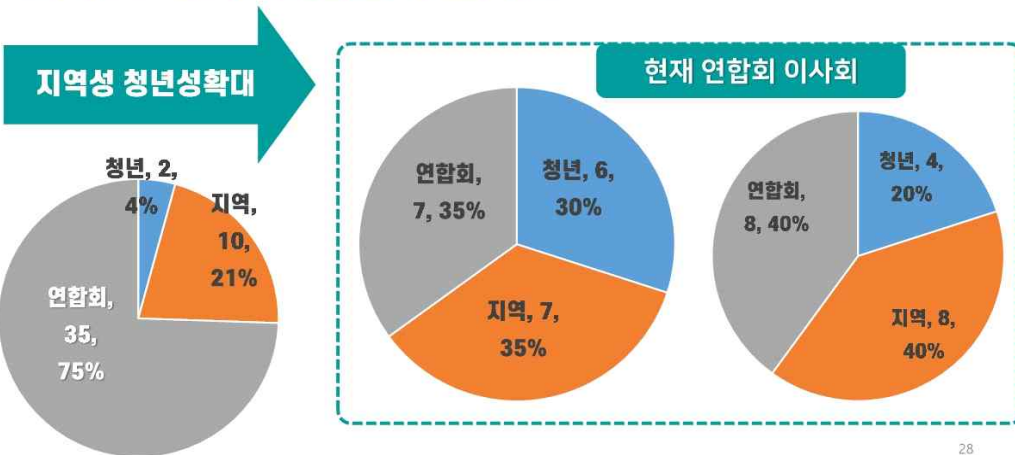
등기번호	001279
등록번호	150121-0012793
명칭	사단법인 아이디블유씨에이
주사무소	[Redacted]
목적	본회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견제하여 여성의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는 복지사회, 지속가능한 환경과 평화가 보장되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Redacted] ***** 대표권제한규정 이사 [Redacted] 의에는 대표권이 없음 이사 [Redacted] ***** 이사 [Redacted] *****

한국YWCA연합회의 구조개편



27

한국YWCA연합회의 구조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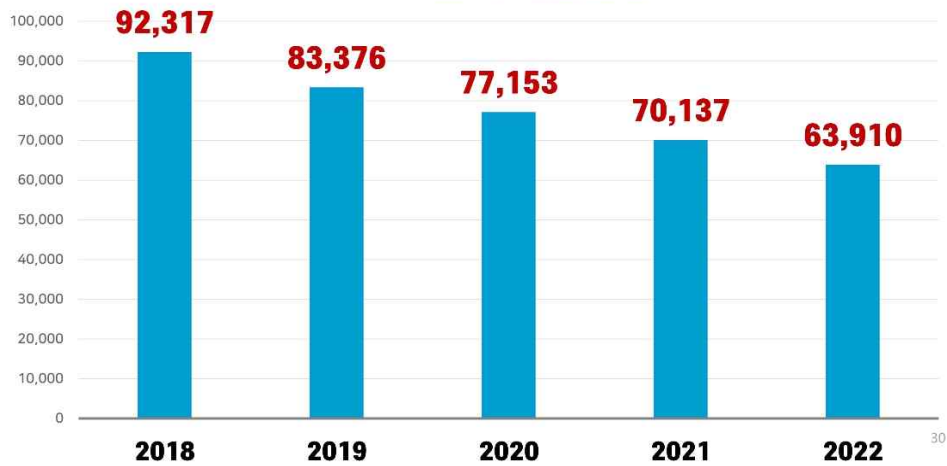
28

YWCA에 후원해 주세요

#아름다운_세상을_만들어요
#생명의_바람_세상을_살리는여성
#당신의_참여가_세상을_변화시킵니다

29

YWCA 전국 회원현황



30

우리는 어떻게 설득할까?

#왜 가입해야되죠? #그래서 무슨일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가 변하는데요? #저는 바빠서요 #다른곳에 후원하고있어요



31

ADVOCACY가 모금이다



#목적이 명확해야 재정을 모금한다
#기부목적에 맞는 기부금의 사용의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다 알고싶어요
#변화된 기부의 개념
#좋아요 기부
#구경만하고 싶지않아요

32

- 한국YWCA 창립 100년 이후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한국YWCA 세 법인과 회원YWCA가 Y정체성과 목적에 맞게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구조로 재정비함.
- 지방분권화 시대에 **회원YWCA의 자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운동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020.3. 한국YWCA 정기총회
"회원YWCA 재구조화 5개년 계획 정책 목표"

33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34

강의 및 워크숍

비영리 거버넌스와 회장 리더십

강사 |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2023년 YWCA 신입회장교육

비영리 거버넌스와 회장 리더십

2023.2.22(수) 15:30~17:30

이 명 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2023 Institute for NonProfit Organizations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INDEX

1. 비영리 책무성과
거버넌스

2. 위대한
거버넌스 세우기

3. 회장의 리더십

1

비영리 책무성과 거버넌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비영리단체’
옥스팜 스캔들

DAILY NEWSPAPER OF THE YEAR

THE TIMES

Friday February 9 2008 | thetimes.co.uk | No 72453

Only £1 to subscribers £3.60

Top Oxfam staff paid Haiti survivors for sex

Charity covered up scandal in earthquake zone © Girls at 'Caligula orgy' may have been under-age

TIMES INVESTIGATION

Sean O'Neill Chief Reporter

One of Britain's biggest charities covered up the use of prostitutes by senior aid workers in earthquake-torn Haiti.

A Times investigation has found that Oxfam, which receives £30 million a year in British government funds and public donations, allowed three men to resign and siphon four far from misconduct after an inquiry into sexual exploitation, the downgrading of pornography and intimidation.

A confidential report by the charity had been 'a culture of... among some staff in Haiti'.



Human eggs grown in lab offer hope to infertile

Tom Whipple Science Editor Helen Phillips

Human eggs have been grown to maturity outside the body for the first time in a breakthrough for fertility science.

Scientists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announced that they had removed egg cells from women's ovarian tissue and developed them in a laboratory to the point where they were ready to be fertilised. The advance, one day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IVF to help older women to conceive. It could also help to preserve the fertility of girls undergoing cancer treatment.

Evelyn Telfer, the senior scientist involved, said that the work was the culmination of 30 years of research to better understand the early stages of reproduction. Scientists can now study egg development in the laboratory.

“성금·기금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 이용수(92)할머니 기자회견(2020.5.25)



이후 검찰은 수사 4개월 만에 지난 9월 14일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의연 이사 A(45)씨 역시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비영리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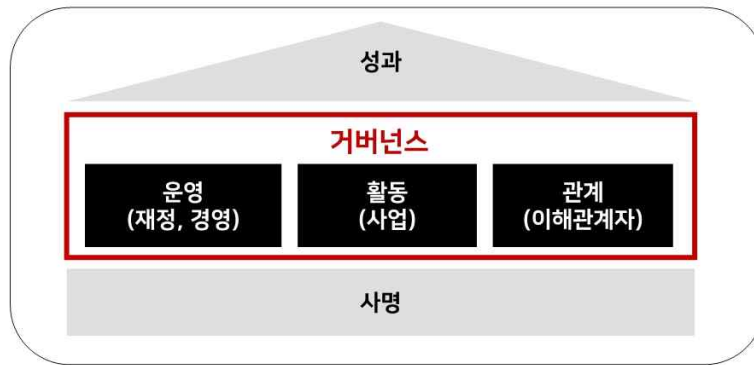
기부금 사용, 재정운영
정보 공개와 보고면 충분한가?

규정이 조직 운영에 실제
적용되는가가 관건
(의사결정구조 문제)

“경영진에 수차례 내부 고발을 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옥스팜 헬렌 어번스
“직원들의 반발이 상당했다” - MIT미디어랩 내부고발자



#비영리 책무성의 범주



투명성 vs 민주성 vs 책무성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기부금 사용 및 재정적 정보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수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 운영과 내부규정 마련 등의 노력	사명, 성과, 재무, 지배구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규정실행정도 정보공개수준 : 사업성과정보, 조직운영정보, 재정정보 정보공개 수단 활용도 상호작용 수단 활용도 조직의 반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정비 정도 규정준수 촉진 정도 직위의 고른 분포 의사결정 개방성(참여도) 내부의사결정의 빈도(적극성) 내부의사결정 주체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공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 지배구조(이사회의 책무-Duty of care, obedience, loyalty) 성과(결과와 성과기반 책무) 사명(사명중심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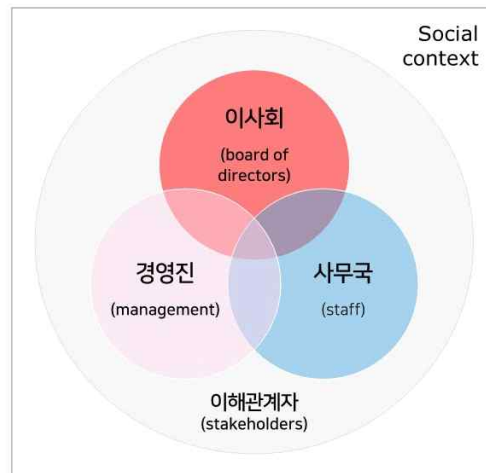
*투명성, 민주성 구성요소 : 이만영·노연희(2019), 비영리 조직 리더십과 투명성에 관한 심층조사, 기법코리아2019, 아플다운재단
 *책무성 구성요소 : 국내 비영리조직 투명성에 관한 인식조사, 2017ISSUE PAPER1, 아플다운재단

거버넌스의 정의

- '통치, 관리, 또는 통치(관리) 방식', '지배구조', '협치' 등(사전적 의미)
-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시스템(국제표준화기구)
- 조직의 최상위에서 의사결정, 리더십, 책임, 통제 및 행동을 위한 구조 및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고,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방법,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하는 방법, 성과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침
- 잘 구조화된 체계를 갖춘 거버넌스가 조직 전체에 적용될 때 조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되고, 구성원들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조직의 신뢰도가 향상됨



- 비영리 거버넌스는 이사회, 경영진, 사무국이 단체의 목적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과 권한을 배분하고 책무성 달성 기제를 수립하는 것
- 특히, 이사회는 비영리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서 기관의 사업을 들여다보고, 외부의 지원을 끌어오며,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의사결정 기구
(비영리 거버넌스=이사회 리더십)
- 비영리 거버넌스 요소 : 이사회 구성,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협력적 관계, 이사회에 대한 단체성과에 대한 영향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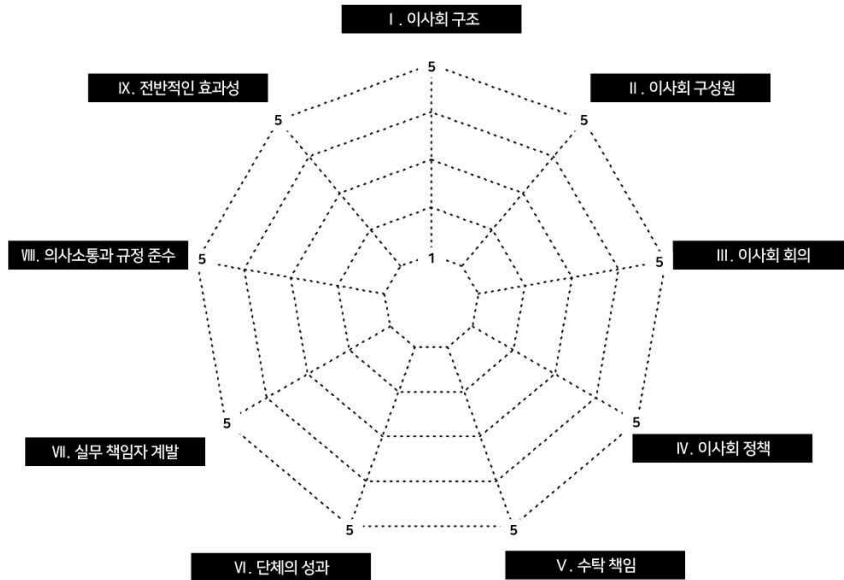
- “모든 이사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피터 드러커
- “비영리 기관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최고의 총명한 이사들을 선임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 불굴의 용사들을 일에 열중하게 하기보다는 손을 떼게 만들어, 지적 활기는 커녕 무기력한 환경 속에서 집단적으로 빈둥거리게 만드는 것인가?”
- Chait, Ryan, & Taylor(2004),
Governance as Leadership: Reframing the work of Nonprofit Boards 중

비영리 이사회 문제점

- 1 허술한 구조
- 2 모호한 영입기준
- 3 잘못된 리더십
- 4 해이해진 이사들
- 5 절차에 관한 의견 충돌
- 6 불분명한 경계
- 7 모호한 전략

비영리단체 이사회 평가	항목	1	2	3	4	5	평균
		전혀 동의x	동의x	보통	동의	매우 동의	
I. 이사회 구조	1. 우리 이사회는 알맞은 수준의 이사 수를 확보하고 있다.						합계 ÷5
	2. 우리는 이사 영입에 필요한 절차를 잘 갖추고 있다.						
	3. 우리는 신입 이사에게 필요한 예비 교육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4.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이 명확히 잘 구분되어 있다.						
	5. 이사회와 경영진은 상호 간 소통이 원활하다.						
II. 이사회 구성원	6. 우리 이사들은 단체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합계 ÷7
	7. 우리 이사들은 단체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 우리 이사들은 이사회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9. 이사들은 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						
	10. 우리는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직무설명서를 잘 갖추고 있다.						
	11. 우리는 모든 이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문서로 잘 정리에 놓았다.						
	12. 우리는 이사들이 퇴임할 때 예우를 갖추는 관례가 잘 되어 있다.						
III. 이사회 회의	13.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횟수로 열리고 있다.						합계 ÷6
	14. 이사회 회의 시간이 적절하다.						
	15. 이사장이 회의를 매끄럽게 잘 진행한다.						
	16. 이사들이 토론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7. 이사들은 회의안건 및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한다.						
	18. 이사회 운영 자체를 논의하는 워크숍이나 회의가 이루어진다.						
IV. 이사회 정책	19. 이사회에 대한 정책(정책설명서, 규정)이 문서로 잘 정리에 놓여 있다.						합계 ÷3
	20. 이사회 정책설명서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검토가 이루어진다.						
	21. 이사회는 정책설명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분	항목	1	2	3	4	5	평균
V. 수탁 책임	22. 우리 이사들은 단체의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합계 ÷3
	23. 이사들은 예산 및 재무 보고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						
	24. 이사회는 단체의 재무상태와 예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잘 대처한다.						
VI. 단체의 성과	25. 이사회는 단체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						합계 ÷4
	26. 이사회는 단체의 전반적인 성과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27. 이사회는 매년 단체의 성과를 평가한다.						
	28. 이사회는 단체의 성과를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VII. 실무 책임자 관리	29. 이사회는 실무책임자를 통해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						합계 ÷3
	30. 이사회는 실무책임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31. 이사회는 실무책임자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포함한 보수를 결정한다.						
VIII. 의사소통과 규정 준수	32. 이사회는 단체가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합계 ÷4
	33. 이사회는 단체의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4. 이사회는 단체의 청렴성을 잘 지키고 있다.						
	35. 이사들은 지역사회에서 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IX. 전반적인 효과성	36. 이사들은 이해관계자를 위해 봉사하는 수탁자임을 이해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합계 ÷5
	37. 이사회는 단체의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다.						
	38. 이사회는 단체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39. 이사회는 단체가 지속가능하게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효과적으로 돕고 있다.						
	40. 이사회는 거버넌스 과정을 끊임없이 개선해 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총 평균점수 = 영역별 평균점수(I ~ IX) 합계 ÷ 9							



팀별 상호대화

팀별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와 평가결과를 나눠 주세요.
개인당 3분

1. 간단한 자기소개
2. 이사회 평가 결과 나누기
(강점과 약점을 중심으로)



2 위대한 거버넌스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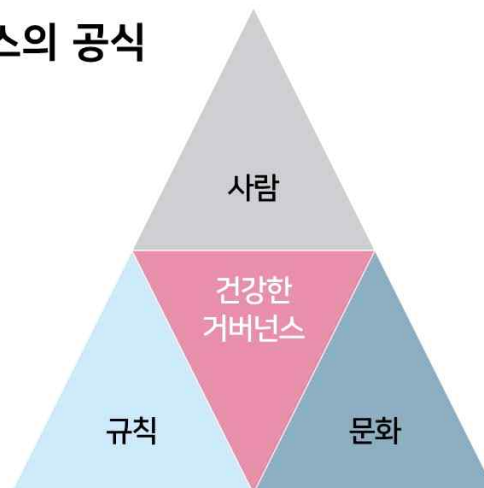
위대한 조직의 공식

짐 콜린스,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1.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워야 한다.
2. 부적합한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
3.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버스 안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



위대한 거버넌스의 공식



|(1) 사람. 이사회 구성원들의 브랜드 가치

참여도	명성과 이름 인지도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이사회 구성
적합한 이사란?

1

미션과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치정합성)

2

단체 성과에 기여하는 사람
(역할과 책임 인식)

3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성별, 연령, 전문성, 관점 등)

(2) 규칙 : 정책수립

“모든 이사회의 활동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존 카버)

정책 = 이사회 가치 및 관점	(1) '가치'지향적 행위 (2)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 환류적·반복적 과정 (3) 민주적인 정책과정
정책 범위	(1) 성취해야 할 목적(단체의 목적) (2) 경영상의 한계(운영진 제한사항) (3) 경영진에 대한 위임(이사회와 단체장의 관계) (4) 이사회 운영절차(거버넌스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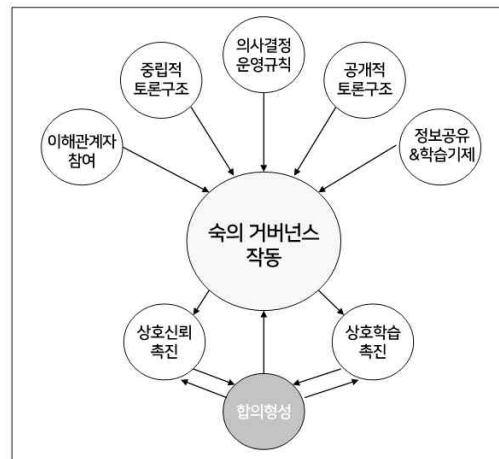
이사회 정책지침서

정책명칭	개요
단체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정책은 단체가 달성해야 할 결과, 수혜대상, 결과를 내는데 드는 비용을 설명 수단이나 방법,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루지 않음. 이 항목에 포함된 모든 정책은 결과나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설명해야 함 목적 정책에는 단체가 앞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애써야 하는지를 정하는 이사회의 끝없는 노력이 반영
운영진 제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진에 대한 기대, 즉 단체장과 실무자들이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다름. 즉, 경계선을 규정. 어떤 행동과 방법, 관행은 허용되고 어떤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지를 알림 이러한 접근법은 실무진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이사회가 새로운 계획을 하나하나 승인할 때까지 활동을 보류할 필요가 없게 해 줌 또한, 이사회가 책임지고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관여하는 행동을 최소화하게 해 줌. 이 정책은 실무진 전체가 아니라 단체장에게 적용됨. 단체장은 모든 실무진의 행동이 이 정책이 정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함
이사회와 단체장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와 단체장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함.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한 목소리를 내고, 모든 이사회 권한은 단체장을 통해 위임됨 이 말은 단체장이 이사 개개인이나 단체의 임원,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뜻임 또한, 이 말은 이사회가 단체장과만 협업하고, 실무진이나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뜻임
거버넌스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 개개인과 전체 이사회의 행동 기준, 이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설명함 이사회 지휘방식, 이사장의 역할, 이사의 행동, 이사의 책임, 위원회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 이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장은 이사회 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이사회는 이해당사자를 대표하고 점검

* 존 카버, 변화를 이끄는 이사회, 나남

(3) 문화. 사람과 구조를 갖추면 거버넌스가 건강한가?

“좋은 거버넌스에는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참여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양질의 숙의과정(Deliberation Process)이 담겨있다. 거버넌스가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크에 기반한 관리라는 것이 강조된다고 할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논의구조, 토의구조가 곧 숙의의 과정이고, 그런 점에서 숙의과정은 거버넌스의 일환이 되며, '숙의 거버넌스'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이사회에는
좋은 회의가 있다

- 1 보고와 지시사항만 있는 회의는 의미 없다
- 2 회의가 한 사람의 의견에 좌우 되서는 안된다
- 3 핵심을 벗어나지 말고 생각을 정리해 발언하라
- 4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지 말고 상대방을 설득시켜라
- 5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3

회장의 리더십

Who am I?

- CEO(Chief Executive Director) 최고경영자 : 실무책임을 맡은 대표, 최고책임자
- Chairman 의장/이사장 : 이사회나 이사를 지휘하는 사람, 이사들의 대표
- President 사장/부사장 : 각 사업부문별 진행사항을 CEO에게 보고하고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집행임원, COO(Chief Operating Officer)의 직책수행
- Representative Director 대표이사 :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회사 법상 법률용어로 특정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

회장의 품격

인TEGRITY (Integrity)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정직이며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품성

서번트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자기인식을 중요시하여 개인적 삶을 반성 (reflection)하고 영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타인에 대한 봉사와 섬김

전략적 사고 (Strategic Thinking)

불확실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과 여러 요인을 통합해 미래에 예측되는 시나리오를 명쾌하게 창조하는 사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장

-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지는 자리
- 이사회를 책임 있는 의사결정기구로 만드는 역할
-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회의문화를 이끄는 역할
- 의장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수행
- 다른 이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빛나게 하도록 돕는 리더십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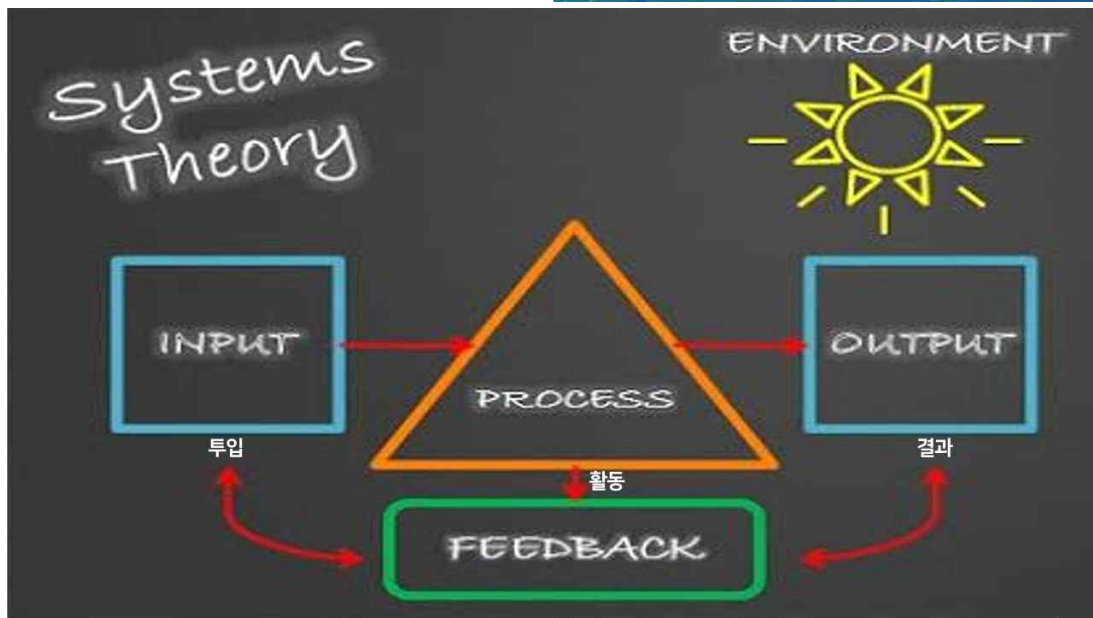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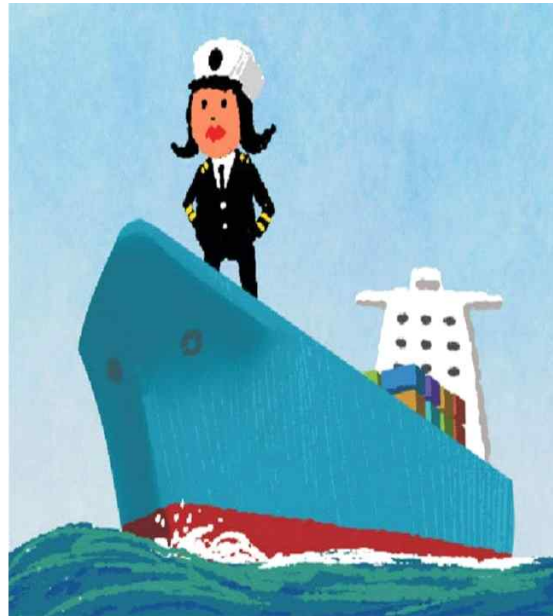
단체 대표로서 회장

사단법인의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정기총회를 이끌며 대내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하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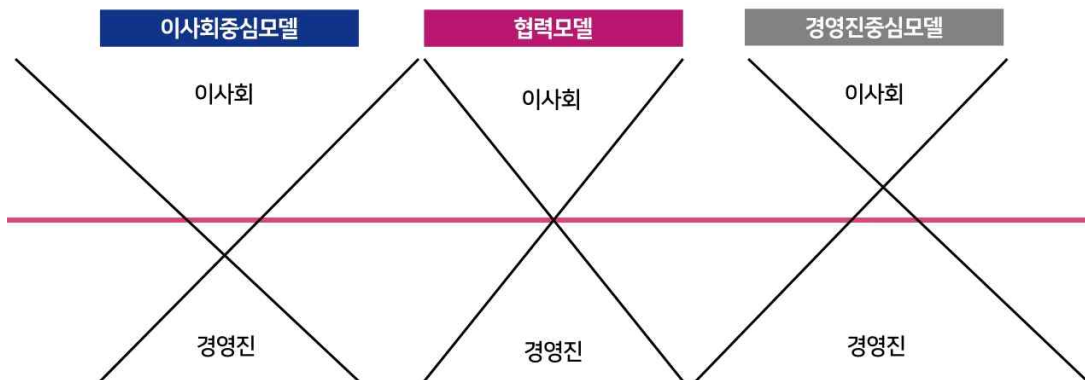
- 장기적 비전 수립
- 전략적 방향 제시
- 조직의 핵심역량 개발 및 유지
- 인적자원 개발
- 외부환경 변화 대응
- 지속적 혁신 추진

사단법인 정기총회

- * 총회는 필수기관(민법), 이사회는 임의기관(정관)
- * 회원 :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 안건 : 1)정관개정, 2)전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3)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임원변경 승인, 5)법인 임의해산, 6)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이사회 유형 : 이사회와 경영진 간 역할관계



* Edgar Stoesz (2015), Doing Good Better 수정

비영리 이사회 역할과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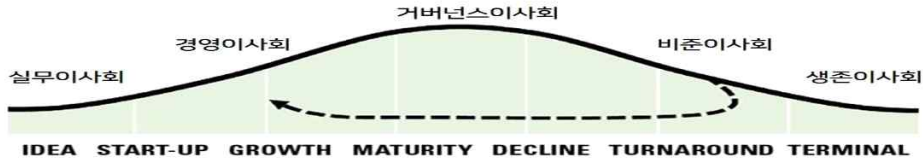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법적책임)
2. 정책수립(규칙, 절차)
3. 전략기획(미션, 비전, 미래방향)
4. 재정관리와 감독
5. 기금모금
6. 최고경영자 선발 및 평가(승계계획)
7. 권한위임 : 이사회와 경영진 관계

팀실습)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위임할 것인가?

N	역할과 책임	이사회 ●	실무책임자(경영진) ●	이사회+경영진 ●
1	정책수립(규칙, 규정 만들기)			
2	전략기획 수립(미래전략)			
3	전략계획 수립(사업단위)			
4	미션과 비전 설정			
5	예산산 심의 및 승인			
6	예산편성, 재정운영			
7	이사선임, 교체			
8	기부자 관리			
9	기부자 감사(예우)			
10	성과모니터와 책임 감독			
11	직원채용과 평가			
12	CEO 채용과 평가, 권한설정			
13	자원 확보(모금, 사람 등)			
14	단체 명성 제고			
15	이사회 연간 업무계획 수립			
16	프로그램/사업 평가			
17	재정감독과 위험관리			
18	사무국 운영관리 책임			
19	이사회 오리엔테이션, 교육			
20	이사회 회의 안건 마련			

THE NONPROFIT LIFECYCLE



조직 수명 주기	설립기 (Idea, Startup)	성장기 (Growth)	성숙기 (Maturity)	쇠퇴기 (Decline)	재활성화 (Turnaround)	해산기 (Terminal)
이사회 유형	실무 이사회	경영 이사회	거버넌스 이사회	비준 이사회	경영 이사회	생존 이사회
조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조직 체계 미흡 목적의식이 강한 설립자와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규모 성장 조직 체계화 요구 전문경영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규모 확대 조직 체계 공식화 (제도, 규칙, 절차, 통제시스템 구축) 경영진 리더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규모 유지 혹은 감소 관료주의, 경직된 리더십에 대한 저항 단체명성 혹은 사회적 영향력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재구조화(효율적 구조로 개편) 조직위기에 적극적 대응(변화와 혁신 시도) 협동, 팀워크 등 조직문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규모 감소 조직위기대응 실패 합병 혹은 해산절차
힘의 균형	이사회 중심	이사회 중심	협력 모델	경영진 중심 모델	이사회 중심 모델	경영진 중심 모델
이사회 역할	자원활동가로 단체실무를 직접 수행	이사회가 경영진의 역할에 깊숙이 개입	이사회와 경영진 간 역할 구분,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역할을 위임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들은 승인하는 역할 수행	단체의 혁신을 위해 이사회가 다시 경영에 개입	이사회는 유명무실, 경영진의 주도로 단체해산절차 진행

거버넌스 리더십 (Governance as Leadership)

이사들이 왜 관리자처럼 행동하는가?
이사회가 리더십의 기회를 확대시켜갈 때
더 나은 거버넌스가 가능하다.
기관의 문제해결을 위해 해결책을 찾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전에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 Eric Hobsbawm



※ 워크시트1. 이사회 평가 자가진단표

구분	항목	1	2	3	4	5	평균
		전혀 동의 x	동의 x	보통	동의	매우 동의	
I. 이사회 구조	1. 우리 이사회는 알맞은 수준의 이사 수를 확보하고 있다.						
	2. 우리는 이사 영입에 필요한 절차를 잘 갖추고 있다.						
	3. 우리는 신입이사에게 필요한 예비 교육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4.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이 명확히 잘 구분되어 있다.						
	5. 이사회와 경영진은 상호 간 소통이 원활하다.						
II. 이사회 구성원	6. 우리 이사들은 단체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다.						
	7. 우리 이사들은 단체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 우리 이사들은 이사회 역할과 책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9. 이사들은 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						
	10. 우리는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직무설명서를 잘 갖추고 있다.						
	11. 우리는 모든 이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문서로 잘 정리해 놓았다.						
III. 이사회 회의	12. 우리는 이사들이 퇴임할 때 예우를 갖추는 관례가 잘 되어 있다.						
	13.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횟수로 열리고 있다.						
	14. 이사회 회의 시간이 적절하다.						
	15. 이사장이 회의를 매끄럽게 잘 진행한다.						
	16. 이사들이 토론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7. 이사들은 회의안건 및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한다.						
IV. 이사회 정책	18. 이사회 운영 자체를 논의하는 워크숍이나 회의가 이루어진다.						
	19. 이사회에 대한 정책(정책설명서, 규정)이 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다.						
	20. 이사회 정책설명서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검토가 이루어진다.						

※ 워크시트2.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위임할 것인가?

N	역할과 책임	이사회	실무 책임자 (경영진)	이사회+ 경영진
1	정책수립(규칙, 규정 만들기)			
2	전략기획 수립(미래전략)			
3	전략계획 수립(사업단위)			
4	미션과 비전 설정			
5	예결산심의 및 승인			
6	예산편성, 재정운영			
7	이사선임, 교체			
8	기부자 관리			
9	기부자 감사(예우)			
10	성과모니터와 책임 감독			
11	직원채용과 평가			
12	CEO 채용과 평가, 권한설정			
13	자원 확보(모금, 사람 등)			
14	단체 명성 제고			
15	이사회 연간 업무계획 수립			
16	프로그램/사업 평가			
17	재정감독과 위험관리			
18	사무국 운영관리 책임			
19	이사회 오리엔테이션, 교육			
20	이사회 회의 안건 마련			

워크숍

회장 네트워킹 및 다짐 나눔

진행 | 송록희(한국YWCA연합회 지역협력교육국 국장)

- 준비물: 개인 필기구, 매직, 포스트잇, 전지

- 워크숍 진행 순서

19:20~19:25 (5')	워크숍 소개
19:25~20:05 (40')	조별 모임
	자기소개(5')→<95개 논제> 읽기(15')→목상 나눔(5')→회장으로서 다짐 나눔(10')→기도 및 마무리(5')
	★ 모임 장소 ★ 1조 A스페이스 2조 A스페이스 참가 3조 C스페이스 4조 W스페이스
20:05~20:20 (15')	조별 발표(3분씩) 및 마무리

- 조별 모임 세부내용 (총 40분)

조장 정하기	모임 진행과 발표를 맡을 조장을 정합니다.
자기소개(5')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1분을 넘지 않습니다)
목상 및 나눔(20')	1)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 읽기 - 95개 중 총 20개를 발췌하였습니다. *<목상 자료> 활용 - 돌아가면서 한 개씩 읽습니다.
	2) 95개 논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을 나눕니다
다짐 나눔(10')	1)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하나님나라운동을 전개하는 YWCA 회장으로서 사명과 다짐을 생각해보고,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작성 문구 예시 “나는 () 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장으로서 나는 ()을 하겠습니다.”
	2) 다짐을 적은 포스트잇을 전지에 붙이고 돌아가면서 내용을 나눕니다.
한줄기도 및 마무리(5')	1) 손을 잡고, 돌아가면서 한 문장으로 기도합니다. 2) 마지막 조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합니다.

- ★ 조별 모임 마무리 후, 원래의 자리에 착석해주세요.
- ★ 다짐 나눔을 부착한 전지를 앞으로 들고나와서, 조장이 대표로 발표합니다.

목상 자료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²⁾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는 한국YWCA 활동가들이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해서 토론하기 위한 95개의 논제이다. 95개의 논제는 종교개혁 전통을 계승하고, 한국YWCA의 목적문 정신을 담고, 현재 한국의 시대정신과 YWCA 활동가의 자세를 포함하였다.

<종교개혁 전통>

01. 교황 레오 10세는 성서의 말씀보다 교황의 칙령을 더 우선했다. 루터는 성서의 말씀을 더 우선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요한복음 1:1)
08. 한국YWCA는 한국YWCA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누가복음 4:43)
12. 한국YWCA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존중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28)
16. 한국YWCA는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요한일서 3:18)
20. 한국YWCA는 YWCA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YWCA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높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요한복음 8:54)

<한국YWCA의 목적문 정신>

25. 한국YWCA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Kύριος), Lord’, 주인을 의미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세기 1:1)
29. 한국YWCA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마태복음 23:10)
31. 한국YWCA에서 모든 인류는 한 형제자매이다.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로마서 13:9)
33. 한국YWCA는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출신 학교가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야고보서 2:1)
35. 한국YWCA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시민운동단체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로마서 2:13)
37.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마태복음 22:37-40)
44. 우리가 한국YWCA에 모인 것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9:2)
47. 한국YWCA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정의의 나라를 꿈꾼다.

<그 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돌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예레미야 33:15)

49. 한국YWCA의 목적인 정의의 나라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이사야 1:17)

57. 한국YWCA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를 꿈꾼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누가복음 2:14)

62. 한국YWCA의 목적인 평화의 나라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나라이다.

68. 한국YWCA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것이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세기 1:1)

74.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창세기 4:8)

<시대정신과 한국YWCA 활동가의 자세>

86. 한국YWCA는 신앙공동체이다. 신앙공동체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공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회원들이 권한을 위임한 대표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것은 한국YWCA라는 공동체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한국YWCA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4:40)

94. 한국YWCA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일을 한다. 신앙은 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YWCA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마태복음 6:10)

메 모

2) 본 자료는 한국YWCA연합회 실무활동가들이 한국YWCA 창립 100년 이후의 새로운 YWCA를 꿈꾸며 토론을 통해 논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한 것입니다.

안내

- I. 숙박 안내
- II. 23일(목) 일정 안내
- III. 기타

I. 숙박 안내

1. 호텔명: 호텔 스카이파크 명동 2호점(서울 중구 명동9길 22)
2. 조식 안내
 - 조식 장소: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점 지하 1층
 - ※ 숙소와 조식당 건물이 다릅니다. 1층 로비에서 나오셔서 왼쪽 바로 옆 건물 지하 1층
 - 이용 시간: 오전 7:00 ~ 9:00 시간 내 자유롭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3. 체크아웃 안내
 - 체크아웃 시간: 2. 23(목) 오전 9:25분까지 완료
 - 오전 9시부터 숙소 1층 로비에 실무자가 대기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 객실키와 명찰을 실무자에게 반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응급약품이 필요하신 경우, 이수진 간사(010-4972-775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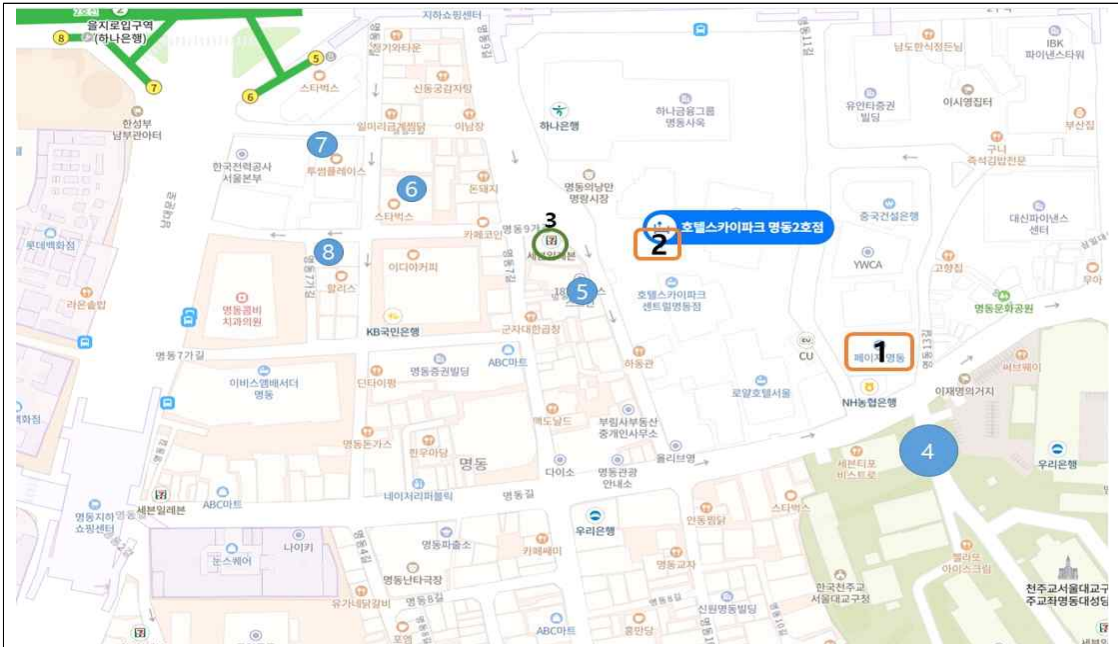
★ 비상연락망

송록희 국장(010-3343-3746) 정서연 부장(010-8773-2791) 이수진 간사(010-4972-7751)

방배정 명단

구분	소속	명단	
1	경인강원권역	강릉 전배자	동해 김근혜
2	경인강원권역	서울 조연신	인천 권미영
3	경인강원/충청권역	춘천 이병욱	세종 김인숙
4	경기권역	고양 김혜경	의정부 신선화
5	경기권역	광명 곽은	안양 박혜숙
6	충청권역	청주 윤성자	충주 조영숙
7	경상권역	사천 구영화	안동 임귀숙
8	경상권역	진주 정덕은	진해 박명숙
9	전라제주권역	군산 우원경	익산 이진주
10	전라제주권역	광주 노은미	목포 강경숙

숙소 주변 안내



주요 장소

번호	장소
1	(사)한국YWCA연합회
2	호텔스카이파크 명동 2호점(숙소)
3	24시 편의점
4	명동성당 -점등시간 : 17시 30분~22시

카페

번호	매장
5	맷차 -운영시간 : 08:00-22:00
6	스타벅스 명동메트로점 -운영시간 : 07:30-21:00
7	투썸플레이스 을지로입구역점 -운영시간 : 07:00-23:00
8	할리스 을지로입구점 -운영시간 : 8:30-23:00

Ⅱ. 23(목) 일정 안내

1. 집결

-시간: 2. 23(목) 오전 9:30

-장소: 숙소 1층 로비

※ 객실키와 명찰 반납 완료 후 로비 집결

※ 예약 택시 탑승을 위해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동: 호텔→연합회 정기총회 장소(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7 새문안교회)

-교통편: 타다 택시 (※ 사전 예약 완료)

-탑승 인원: 4인 (※ 총 6대, 탑승 배정표 참고)

-(예상) 소요시간: 약 17분(2.6km)

※ 신속한 택시 탑승을 위해 택시 탑승 배정 명단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 택시 실무 담당: 1·2호차 송록희 | 3·4호차 정서연 | 5·6호차 이수진

3. 신임회장단 특송 연습

-일시: 2. 23(목) 오전 10:30~10:50

-장소: 새문안교회 언더우드홀

-특송: 찬송가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4.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일시: 2023. 2. 23(목) 오전 11:00 ~ 오후 4:30

-장소: 새문안교회 언더우드홀

※ 참고: 연합회 정기총회 일정

11:00~11:30	등록	
11:30~12:10	개회예배	예배로의 부름-찬송-기도-특별찬양
12:10~13:30	점심식사	장소: 친교실
13:30~16:30	사무회의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사무안건처리 등
16:30	폐회	폐회기도

택시 탑승 배정 명단

구분	택시	소속	명단	
1	1호차	경인강원권역	강릉 전배자	동해 김근혜
2		경인강원권역	서울 조연신	연합회 송록희
3	2호차	경인강원/충청권역	춘천 이병옥	세종 김인숙
4		경기권역	고양 김혜경	의정부 신선화
5	3호차	경기권역	광명 곽온	안양 박혜숙
6		충청권역	청주 윤성자	충주 조영숙

7	4호차	경상권역	사천 구영화	안동 임귀숙
8		경상권역	진주 정덕은	연합회 정서연
9	5호차	전라제주권역	군산 우원경	익산 이진주
10		전라제주권역	광주 노은미	목포 강경숙
11	6호차	경인강원/경상권역	인천 권미영	진해 박명숙
12		연합회	연합회 이수진	

III. 기타

◎ 신임회장 특송 악보_ 찬송가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582

어둔 밤 마음에 잠겨

(통일 261)

김재준(1901-1987)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욘 10:15)

나라사랑

교회: IRREG.
이동훈, 1967

보통으로

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역사 에 어둠 짙었을 때 에
2. 옥토 에 뿌리는 깊어 하늘 로 줄기 가지 솟을 때
3. 맑은 샘 줄기 용 솟아 거칠 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계명 성 동 쪽 에 밝 아 이 나 라 여 명이 왔 다
가 지 앞 억 만 을 헤 어 그 열 매 만 민 이 산 다
기름 진 푸 른 별 관 이 눈 앞 에 활 짝 트 인 다

고요 한 아침 의 나 라 빛 속 에 새 름 다
고요 한 아침 의 나 라 빛 일 끈 을 부 른 다
고요 한 아침 의 나 라 새 하 늘 새 땅 아

이 빛 삶 속 에 얼 혀 이 땅 에 생 명 탐 놓 아 간 다
하 길 빛 들 이 끼 지 지 않 는 인 류 의 생 명 을 이 어 가 리
라

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문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지켜온 YWCA 목적과 운동방식을 성찰하고,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정의·평화·생명의 세상 건설을 위한 기독교시민운동의 주체로서 다시 담대히 일어서고자 한다.

1922년 이 땅의 기독교청년여성들은 식민 압제와 여성 억압의 상황에서 절규하고있는 현실을 통탄하며 민족의 발전과 전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기관으로서 YWCA를 선택하고 조선 여성의 이름으로 주체적으로 조선YWCA를 창립했다.

오늘날까지 한국YWCA는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시민운동 역사를 이어가며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창립 초기의 청년성을 잃었고, 조직의 확장이 운동성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때로는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 침묵했고, 앞드려 기도하면서 담대히 일어서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한다.

한국YWCA의 새로운 100년은 청년이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하며, 편견과 차별을 깨고 생명살림을 실천하는 주체적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을 지역으로부터 펼쳐나가며, 건강하고 선도적인 조직 개혁으로 시민운동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시작된다.

한국YWCA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YWCA 목적과 비전이 회원들의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삶에서 실천하는, 연대와 환대로 가득찬 여정이 될 것이다.

Y 수평, 깨어있음, 변화, 극복

우리는 청년이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한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나이, 배경, 경력의 위계에서 자유로우며 수평적인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건설한다.

W 여성리더십, 성평등, 차별배제, 다양성

우리는 여성이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간다.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천한다.

차별과 배제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외와 갈등을 깨고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상호이해와 공존의 문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룬다.

C 기후정의, 생명, 돌봄, 살림, 평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돌본다. 창조질서의 회복과 기후 정의를 이루는 생활과 제도를 만들고 생명살림을 실천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 다음세대의 도움 요청에 적극 응답하고 사회의 구성원과 대화하며 포용한다.

갈등과 분단, 전쟁과 폭력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담대히 전진하며 사회적 영성과 평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간다.

A 연대, 주체성, 지역성

우리는 회원공동체다. YWCA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변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우리의 현장은 지역이다. 기독시민운동단체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강화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한다.

시대의 변화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 비영리공익법인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난다.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운동을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기꺼이 담당한다.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한다.

MEMO
